


인천아트플랫폼 토론회

인천아트플랫폼 성과와 발전 방향

주최 · 주관  인천문화재단  인천아트플랫폼

일 시 2015. 4. 28(화) 14:00~17:00

장 소 인천아트플랫폼 H동

프로그 램

사 회

허은광 (인천문화재단 기획경영본부장)

발 제 1

15:10~15:40

인천아트플랫폼의 설립부터 운영까지

양종남 (인천아트플랫폼 운영팀장)

발 제 2

15:40~16:10

인천아트플랫폼, 복합문화예술 공간인가? 창작 공간인가?

공주형 (미술평론, 한신대학교 교수)

발 제 3

16:30~17:00

인천아트플랫폼의 본질과 존재가치

홍경한 (미술평론가, 경향아티클 편집장)

종합토론

17:00~17:40

김창빈 (조각가)

류재형 (사진가, 인천의제21실천협의회 문화분과 위원장)

오석근 (작가, 아트플랫폼 2·3기 입주작가)

이설야 (시인, 아트플랫폼 5기 입주작가)

황순우 (아트플랫폼 총괄계획가, 인하대 건축학과 겸임교수)

목 차

발 제 1

인천아트플랫폼의 설립부터 운영까지 5

양종남 (인천아트플랫폼 운영팀장)

발 제 2

인천아트플랫폼, 복합문화예술 공간인가? 창작 공간인가? 31

공주형 (미술평론, 한신대학교 교수)

발 제 3

인천아트플랫폼의 본질과 존재가치 37

홍경한 (미술평론가, 경향아티클 편집장)

부 록

1. 인천아트플랫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 인천문화재단 인천아트플랫폼 운영규칙

발 제

발 제 1

인천아트플랫폼의 설립부터 운영까지

양종남 (인천아트플랫폼 운영팀장)

발 제 2

인천아트플랫폼, 복합문화예술 공간인가? 창작 공간인가?

공주형 (미술평론, 한신대학교 교수)

발 제 3

인천아트플랫폼의 본질과 존재가치

홍경한 (미술평론가, 경향아티클 편집장)

발제 1

인천아트플랫폼의 설립부터 운영까지

양종남 | 인천아트플랫폼 운영팀장

인천아트플랫폼의 설립부터 운영까지

양종남 | 인천아트플랫폼 운영팀장

1. 들어가며

인천아트플랫폼은 인천시 중구 해안동 일대 구도심의 일본우선주식회사(1888), 삼우인쇄소(1902), 금마차다방(1943), 대한통운창고(1948) 등을 리모델링한 창작공간이다.

인천아트플랫폼의 구성에 대한 지역사회의 요청은 2000년 11월 『개항기 근대건축물 보존 및 주변지역 정비방안에 관한 연구』 용역으로 공론화된 이후 2002년 “미술문화공간 건립 사업계획” 수립과 『인천 구도심의 문화적 재생과 미술문화공간의 효율적 운영 방안(인천발전연구원.2004.10)』 연구 등을 통해 급물살을 타게 되었다. 이후 경관계획, 도시계획, 건축계획, 운영 계획 등 관련 분야별 전문가들을 구성하여 2007년 1월 공사가 착공되었다. 2008년 10월 준공을 마친 후 운영사업 준비를 위해 ‘중구 문화공간 운영 준비 TF팀’이 인천문화재단을 중심으로 총괄 MA(Master Architect), 사업분야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하여 1년간 운영되었다. 2007년 인천시가 진행한 『중구미술문화공간 운영활성화 방안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인천아트플랫폼은 지자체 운영기관인 인천문화재단에 위탁된 후 현재까지 운영 중이다.

초기 도시계획 정책제안에서 출발한 인천아트플랫폼은 낙후된 도시경관과 구도심 활성화라는 도시 재생의 목적을 동시에 충족하기 위하여 과거의 역사를 보존하면서도 동시대의 예술 창작, 유통, 향유의 과정을 포괄할 수 있는 새로운 공간 설계와 사업의 패러다임을 제시해야 했다. 따라서 그 최종적인 형태는 예술가들의 창작 인큐베이팅을 위한 공간과 시민들 누구나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예술을 접할 수 있는 공간을 적절히 나누어 구획되었고, 사업 또한 예술가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통해 생산된 예술(전시·공연·교육 등)이 시민들에게 다양한 형태로 향유될 수 있도록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인천아트플랫폼 개관 추진 경과>

- 2000. 11. 1 : 『개항기 근대건축물 보존 및 주변지역 정비방안』 용역
- 2002. 7. 29 : 『미술 문화 공간』 건립 사업계획 수립
- 2004. 4. 22 : 계획설계 착수(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Master Architect 도입)
- 2004. 7. 22 : 인천시 각계 예술단체를 중심으로 협력위원회의 개최
- 2006. 10. 5 :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
- 2007. 1. 8 : (가칭)중구미술문화공간 공사 착공(건축, 설비, 토목, 조경)
- 2008. 1. : 중구미술문화공간 운영준비 TF팀 구성
 - 인천시 및 인천문화재단 직원, 외부전문가로 구성
- 2008. 10.23: (가칭)중구미술문화공간 명칭공모 및 “인천아트플랫폼(Incheon Art Platform)” 최종 선정
- 2008. 10.31 : (가칭)중구미술문화공간 공사 준공
- 2008. 12. 2 : 인천광역시-인천문화재단간 인천아트플랫폼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위수탁협약 체결
- 2009. 5. 15 : 인테리어 공사 준공
- 2009. 3. 02 : 개관준비팀 신규직원 4명 입사
- 2009. 4. 23 : 인천문화재단 인천아트플랫폼 운영규칙 제정
- 2009. 7. 20 : 인천아트플랫폼 제1기 운영위원회 위촉
- 2009. 8. 21 : 인천아트플랫폼 레지던시 파일럿프로그램 입주작가 공모 및 선정
- 2009. 9. 25 : 인천아트플랫폼 개관

인천아트플랫폼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은 과정을 통해 개관한지 이제 5년이 지났다. 지금 이 시점에서 인천아트플랫폼이 미술관, 박물관 그리고 공연장 등과 같은 독립된 기능을 가진 시설과 다르게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시각예술을 비롯한 다양한 장르를 통섭하고, 예술을 통해 시민과 소통하는 길을 온전히 걸어왔는지 살펴보고 점검할 때이다. 지난 5년간의 시설, 예산, 사업 운영에 대해 꼼꼼히 되짚어 볼 때 비로소 많은 사람들의 꿈이 실현된 이곳이 향후 5년 그리고 10년의 가치를 새롭게 꿈꿀 수 있는 재도약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2. 일반 현황

1) 시설현황

인천아트플랫폼 시설개요						
기관성격	1종 미술관 (등록연월일 2012.7.26)					
대지위치	인천광역시 중구 해안동 1가 10-1번지 외 33필지					
위탁기간	~ 2015.12.31.					
지역지구	일반상업지구,지구단위계획구역(역사문화미관지구),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					
대지면적	A단지	3,263.1㎡ (D동 ~ H동)				
	B단지	3,371.6㎡ (A동 ~ C동)				
	계	6,634.7㎡ (2007평)				
건축면적	4,165.06㎡(1,221.08평)					
연면적	5,593.43㎡(1,692.01평)					
용도	문화 및 집회시설(미술문화시설)					
규모	13개동, 지하1층~4층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철골구조, 조적조					
오수처리시설	현수미생물접촉방법 110㎡/일					
단지명	동명	명칭	시설현황	층수	면적(평)	비고
A단지	A동	교육관	사무실, 교실, 수유실	2층	364.02	고건축 리모델링
	B동	전시관	전시장, 수장고	2층	263.68	신축
	C동	다목적관	공연장, 다목적실, 다목적홀	2층	196.93	리모델링
	C동	야외테크	야외테크, 야외화장실	1층	16.04	신축
B단지	D동	자료관	자료실 2실, 미디어랩 1실	1층	73.38	문화재 리모델링
	E1동	스튜디오	스튜디오 5실, 공동작업장 1실	1층	122.51	신축
	E2동	스튜디오	스튜디오 9실, 휴게실	3층	169.72	신축
	F동	게스트하우스	게스트하우스 9실, 휴게실	4층	75.17	리모델링
	E3동	스튜디오	스튜디오 8실, 휴게실	3층	107.59	신축
	G1동	공방	공방	1층	33.84	리모델링
	G2동	공방	공방	1층	34.49	신축
	G3동	공방	공방	1층	17.35	리모델링
	H동	커뮤니티관	사무실, 커피숍	2층	217.3	신축
			합 계		1692평	

- 2010년 대한민국 공간대상과 건축대상을 동시에 수상한 인천아트플랫폼은 2012년 7월 1종 미술관 등록에 이어 2013년 10월 공연장 등록을 마쳤음
- 2010년 1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약 4년 동안 인천아트플랫폼 A동(교육관) 2층과 H동 2층은 인천문화재단 청사(사무실)로 사용되었음
- C동(공연장)에 초기 마련된 다목적실은 인천문화재단 청사가 건립되어 이사한 후 H동 2층으로 그 기능을 넘겨주고, 공연 연습실로 용도를 변경하였음
- 2014년부터 E동 스튜디오 중 21호, 22호 2개실을 공연분야 입주작가(단체)가 프로젝트형 숙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8인실(2층침대 4조)로 변경하여 운영하고 있음
- G1-3 아트&디자인 스튜디오는 2009년 파일럿 공모를 통해 사진, 금속, 도자 작가를 선정하여 운영한 이후 매년 새로운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가 현재는 G1은 인천작가들의 개인전 운영을 위한 대관중심의 ‘시민갤러리’로, G2는 어린이들이 다양한 미술재료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 아트랩 (Platform Art Lab)’으로, G3는 미취학 영유아를 위한 ‘플랫폼 키즈 북정글 (Platform Kid's Book jungle)’로 운영되고 있음



(인천아트플랫폼 전경)

2) 운영현황

- 운영주체 : (재)인천문화재단
- 운영방식 : 인천시로부터 위탁운영
- 법적위탁운영근거 : 인천아트플랫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현 위탁기간 : 2013. 1. 1 ~ 2015. 12. 31
- 사업목표

1. 새로운 예술 창작 발전소입니다.
 - 다장르 예술 창작 환경 및 프로그램 지원
 - 국제 예술가 프로모션 역할 담당 및 신진 예술가 발굴 지원
2. 국제 네트워크 형성의 플랫폼입니다.
 - 국내외 예술 전문인들간의 네트워크 형성 및 창조적인 예술 교류 촉진
 - 해외 유관 기관과의 문화예술교류 및 국제 협력 관계 구축
3. 발랄한 문화시민과 함께 합니다.
 - 기획 프로그램(시민참여형 전시, 공연, 대안 예술)강화를 통한 대안적인 문화공간 구축
 - 시민대상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강화 및 문화매개자 양성
4. 지역문화 활성화의 코어(core)입니다.
 - 인천의 도시적 특수성을 부각시키는 기획행사 발굴 및 개최
 - 문화와 예술창작활동을 통해 인천광역시의 구도심 재활성화에 기여

- 조직도(2015년 4월 현재)



- 2012년 8월부터 인천문화재단은 인천시로부터 위탁받은 트라이볼 운영사업을 인천아트플랫폼 부서 내에 업무 배치(예산 9억 내외, 인력 3인)하고, 아트플랫폼 관장과 팀장은 2개의 공간운영 관리 책임을 겸직함

○ 조직구성(2015년 4월 현재)

구 분	정원(현원)	주요업무	비 고
관 장	1명(0명)	인천아트플랫폼 운영 총괄	인천문화재단 기획경영본부장이 겸직 中
문화행정직	5명(4명)	레지던시, 공연, 전시, 교육사업	1명 공석
회계직	1명(1명)	회계업무	
기술직	1명(1명)	시설운영, 공유재산 관리, 대관 등	
시설관리직	9명(9명)	전기, 소방, 기계, 환경미화, 경비	인천문화재단 시설관리팀
합계		17명	

○ 부서 업무 분장

성 명	담당업무
허은광 (기획경영본부장/겸직)	○인천아트플랫폼/트라이볼 운영 관리
양종남	○인천아트플랫폼/트라이볼 사업 총괄
이영리	○레지던시 프로그램(시각, 국제교류)
이아름	○레지던시 프로그램(시각, 다원, 문학)
송예진	○레지던시 프로그램(시각, 문화예술교육)
공석	○레지던시 프로그램(공연, 아웃리치 프로그램)
오병석 (기술직)	○아트플랫폼, 트라이볼 공유재산 유지 관리운영, 대관/촬영
김미성 (시설관리직)	○아트플랫폼 공간 운영, 전시장 공연장 자킴이 및 자원봉사 관리 운영

- 관장은 1대 최승훈(2009.7 ~ 2010.12), 2대 이승미(2011.1 ~ 2014. 7)에 이어 몇 달간 공석이였다가 2015년 3월부터 인천문화재단 기획경영본부장(허은광)이 관장을 겸직하고 있음

- 2009년 7월부터 아트플랫폼 발전을 위한 기본정책과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 의결하는 운영위원회(임기 2년, 15인)를 운영하였으며, 현재는 인천문화재단 이사회와 권한 부분에서 상충되는 사항이 있어 운영자문위원회(임기 2년, 7인)으로 규칙을 개정하여 6기 운영자문위원회(임기 : 2015.4~2017.4)가 구성되었음

- 2009년 팀장 1명과 신입팀원 4명으로 구성된 개관준비팀은 방대한 13개 동 규모의 시설운영과 사업운영을 동시에 해야하는 막중한 업무에 비해 부족한 출발을 했고, 현재도 시설운영(관람객 서비스 프로그램, 대관, 촬영 등), 레지던시 프로그램, 기획행사 프로그램(전시, 공연 등),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공공 행정업무 등을 운영하기에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인원 구성임. 특히 작가연구, 지역연구, 아카이빙 등의 준비 과정이 필요한 학예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음

- 최근 문화예술공간(미술관, 박물관 등)의 인턴 혹은 어시스턴트매니저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과 법적인 해석이 개관 시기에 비해 교육생에서 노동자로 바라보는 쪽으로 변화하면서 예산감축 상황과 맞물려 인력운영에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음

3) 예산

○ 인천아트플랫폼의 경상비와 사업비는 인천시로부터 100% 예산을 지원받아 운영되고 있으며 국비(중앙정부 기금 지원사업 등), 후원(롯데백화점 등), 위탁(arte 토요창의예술학교) 등이 추가 전입되어 운영되었음

(단위:천원)

구분	인천시보조금	재단전입금	국비	후원	위탁	백령도	합 계
2009	1,200,000	0	0	0	0	0	1,200,000
2010	1,200,000	45,000	0	0	0	0	1,245,000
2011	1,000,000	45,000	30,000	0	0	0	1,075,000
2012	1,036,400	45,000		20,000	105,000	90,000	1,296,400
2013	1,100,000	45,000	68,000	50,000	50,000	90,000	1,403,000
2014	1,235,000	0	181,500	0	50,000	90,000	1,556,500
2015	900,000	0	0	0	30,000	0	930,000
합계	7,671,400	180,000	279,500	70,000	235,000	270,000	8,705,900

(2009~2015년 인천아트플랫폼 예산 총괄 현황)

- 2010-2013까지 재단 전입금은 인천문화재단이 아트플랫폼 사무실(A동2층,H동 2층)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관리비(전기세, 재세공과금 등)임
- 위 표에서 알 수 있듯이 2015년부터 인천시 재정난 등의 이유 때문에 인천시 보조금이 대폭 삭감된 상태이며, 이는 아트플랫폼 13개 동의 운영을 위한 기본 경상비(시설운영비, 인건비)가 약8억원 내외로 소요되는 상황에서 사업운영에 심각한 어려움을 가져다 주었음
- 2015년 예산 수립 시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시설 개보수 경비 최소화, 3대 관장 인건비 전액 삭감 등의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총 예산 대비 1억 1천만원(총예산대비 12%)을 배정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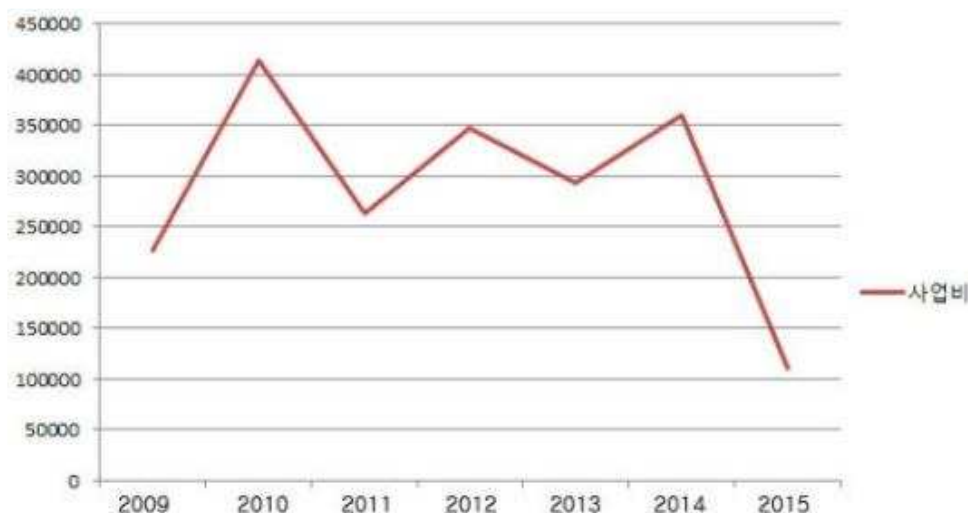
(단위 : 천원)

구분	2009		2010		2011		2012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경상비	973,960	81%	786,669	66%	736,420	74%	749,500	68%
사업비	226,040	19%	413,331	34%	263,580	26%	346,500	32%
계	1,200,000	100%	1,200,000	100%	1,000,000	100%	1,096,000	100%

구분	2013		2014		2015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경상비	806,800	73%	875,000	71%	790,000	88%
사업비	293,200	27%	360,000	29%	110,000	12%
계	1,100,000	100%	1,235,000	100%	900,000	100%

(2009~2015년 경상비와 사업비 현황)

(단위 : 천원)



(2009~2015년 사업비 추이)

- 국비, 후원, 위탁사업비 등 외부 펀드레이징을 통한 자구책 노력과 동시에 최소 규모의 아트플랫폼 운영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2016년 예산확보가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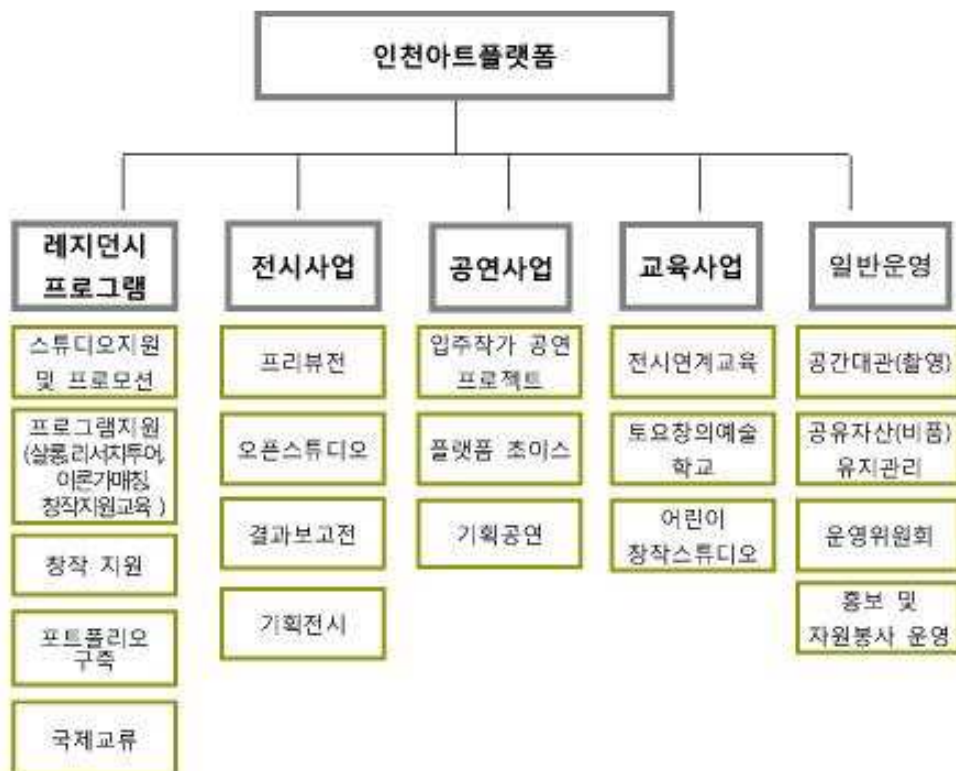
3. 사업 추진 경과

1) 개요

○ 인천아트플랫폼의 사업은 앞서 언급한 네 가지 사업 목표를 중심으로 기획하고 진행되었으며 매년 예산, 인력 운용 상황, 시의성 있는 사업 개발, 인천시 정책 방향(인천아시안게임, 세계 책의 수도 인천 등) 등에 따라 변화를 겪었음

○ 국제심포지엄 등의 국제교류 사업은 예산과 전문 인력 부재 등의 내부 요인에 의해 개관이후 뚜렷한 성과를 거두고 있지 못했으며, 국외작가 선정 및 지원 그리고 국제적인 홍보채널(Res Artis, CAA(College Art Association))의 연간 회원 유지를 통한 국외 홍보에 중점을 두어 운영했음

○ 2015년 현재 사업의 경우도 개관 초기 분류와 대동소이 하나 사업예산 축소, 프로젝트성 사업 일몰, 공간운영의 방향성 변화 등의 사유로 일부 사업의 변동이 있음



(인천아트플랫폼 사업 분류표)

○ 개관 이후 현재까지 사업은 크게 레지던시 사업, 전시사업, 공연사업, 교육사업, 일반운영 그리고 프로젝트성 사업이 고유사업과 연계하여 운영되고 있음

2) 레지던시 입주작가 공모 및 지원프로그램

○ 레지던시 사업은 매년 11월 중 시각예술분야부터 공연, 문학, 연구 및 비평 분야 등을 대상으로 입주 공모를 진행함. 입주 예술가는 스튜디오, 자료실, 공방, 공연장, 세미나실 등을 지원받으며 국외 작가에게는 스튜디오 및 게스트하우스를 함께 제공됨

○ 모집분야와 지원사항은 아래와 같으며, 2015년 작가 공모부터는 지역연계성(인천) 프로젝트에 관심이 많은 작가 선정에 주안점을 두고 공고 하고 심사 하였음

○ 모집분야(2015년 기준)

부문	국적	인원	기간	세부 분야	지원 공간
시각 예술	국내	15	장기 (12개월)	회화, 조각, 설치, 사진, 영상, 미디어아트, 그래픽(일러스트, 만화 등), 공예, 커뮤니티아트, 장소 특정 예술 등	스튜디오
		2	중기 (6개월)	시각 분야 비평가, 예술가, 기획자 등	게스트 룸
	국외	9	단기 (3개월)	회화, 조각, 설치, 사진, 영상, 미디어아트, 그래픽(일러스트, 만화 등), 공예, 커뮤니티아트, 장소 특정 예술 등	스튜디오, 게스트 룸
공연 예술	국내	2	장기 (12개월)	극작, 연출, 안무, 작곡 등	스튜디오
		2	중기 (6개월)	공연 분야 비평가, 예술가, 기획자 등	게스트 룸
		6	단기 (3개월)	다원 예술, 융·복합 공연, 장소 특정 공연, 퍼포먼스, 연극, 무용, 음악 등	공동 오피스, 공동 숙소(8인실)
문학 창작 및 비평	국내	2	장기 (12개월)	시, 소설, 수필, 시나리오, 비평 등	게스트 룸
		2	중기 (6개월)		

○ 지원사항

구분	세부 내용	
공간	공통	공동 작업 공간(미디어 작업 공간, 공동 작업실, 자료실 등)
	시각	장기 : 스튜디오, 1인(팀) 1실 제공
		중기 : 게스트 룸, 1인 1실 제공
		단기 : 스튜디오 및 게스트 룸 각 1인(팀) 1실 제공
프로그램	공연	장기 : 스튜디오, 1인(팀) 1실 제공
		중기 : 게스트 룸, 1인 1실 제공
		단기 : 공동 오피스, 연습실, 공동 숙소(8인실) 1인(팀) 1실 제공
	문학	장기 : 게스트 룸, 1인 1실 제공 중기 : 게스트 룸, 1인 1실 제공
홍보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 작가 대상 교육 - 학제 간 연구(리서치 투어, 대담, 외부 전문가 강연), 기술 워크숍 등 - 창작 지원 - 6기 그룹 전시회 3회(프리뷰전, 오픈스튜디오, 결과보고전), 플랫폼 페스티벌 공연, 비평가(학제 간) 매칭 프로그램, 다 장르 협업 프로젝트(공간, 홍보, 기획 지원), 플랫폼 살롱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함제작 : 입주작가 연락처 및 대표 작품을 삽입한 명함 제작, 배포 - 포트폴리오 구축 : 온라인(홈페이지)/오프라인(폴더) 포트폴리오 구축 - 외부활동 프로모션 : 온라인(홈페이지)/오프라인(게시판, 폴더) 홍보 - 기타 : 스튜디오 맵 제작, 기타 프로젝트별 홍보물 지원 	



(인천아트플랫폼 내부공간 - 작가 입주작가 이용 공간)

○ 지원 프로그램 세부내용

- 플랫폼 살롱 : 입주 작가 간 창작활동 프리젠테이션 및 공유, 질의응답 프로그램을 통해 새로운 작업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하고 작가 간 콜라보레이션 유도

일시	순번	진행시간	발표작가	장소	참여인원
1차 2014.04.17.(목)	1	14:00~14:50	박신영	E-14	17
	2	15:00~15:50	최영	E-10	
	3	16:00~16:40	조현선	E-9	
	4	16:50~17:30	Klega	H-2F	
	5	17:00~19:00	정승	E-6	
2차 2014.04.18.(금)	1	15:00~15:50	김성운	E-7	19
	2	16:00~17:00	정지현	E-13	
	3	17:10~18:00	김성용	E-2	
3차 2014.04.22.(목)	1	14:00~15:00	고영택	E-11	17
	2	15:10~16:00	김희연	E-8	
	3	16:10~17:00	노기훈	E-12	
	4	17:10~18:00	배미정	E-3	
4차 2014.05.13.(화)	1	14:00~15:10	백승기	E-17	20
	2	15:20~16:10	오재우	E-20	
	3	16:20~17:20	이수영	A-2F	
	4	17:20~18:00	프로젝트 그룹 S	실외	
5차 2014.05.16.(금)	1	14:00~14:40	앙드레 마에노	E-16	15
	2	14:50~15:50	이철야	C	
	3	16:30~17:20	이하람	C	
6차	1	14:00~14:50	Guy Konigstein	F동	20

2014.09.25.(목)	2	15:00~15:50	Patrick Mohundro	E-14	
	3	16:00~16:40	Romy Achituv	E-15	

(2014년 플랫폼 살롱 진행현황)

- **교육프로그램 운영** : 입주 작가의 창작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강좌로 외부 전문가를 초청하여 오픈 강좌 진행

차수	일시	주제	강사	참여인원
1차	2014.06.20.(금) 16:00~17:30	예술 활동, 예술 지원을 위한 기본 지식-저작권	남형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8명
2차	2014.06.27.(금) 15:00~16:30	예술과 기술, 기술과 예술, 의존과 고집	원광연 (카이스트 문화기술대학원 교수)	35명
3차	2014.08.29.(금) 13:00~15:30	미디어 아티스트라고 불리는 그들의 '기술' 말고 '이야기'	조주리(독립 큐레이터)	20명
4차	2014.09.04.(목) 16:00~18:00	광주 대인예술 시장의 예술지원 이야기	전고필 (대인예술시장 사업단 총감독)	28명

(2014년 교육프로그램 진행현황)

- **리서치투어 프로그램** : 입주 작가에게 지역 연구 기회를 제공하여, 향후 인천과 관련한 창작 활동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고자 함

	시간	내용	장소
강연	10:10~11:05	인천의 개항과 도시 발전 (강덕우, 인천시 역사자료관 시사편찬위원회 전문위원)	H동 2층
	11:10~12:15	인천 개항 역사와 의미 (김상열, 한국이민사박물관 관장)	H동 2층
	12:15~13:10	점심	H동 2층
	13:10~13:55	인천의 문화 네트워크 (원대로, 인천문화재단 예술지원팀)	H동 2층
투어	14:00~15:50	개항장 투어 (김윤식, 인천문화재단 대표이사) * 10분 설명 후 출발	근대 은행 건축물, 제물포 구락부, 자유공원, 인천 내동 성공회 성당, 홍예문
	15:50~16:20	이동	아트플랫폼 ⇨ 송도
	16:20~17:40	트라이볼 투어 ① 트라이볼 소개 (양종남, 인천아트플랫폼 운영팀장) ② 공간 소개 (김세진, 트라이볼 프로듀서)	송도 트라이볼
	17:40~18:10	이동	송도 ⇨ 아트플랫폼
	18:10~20:00	저녁	인근 식당

(2015 리서치 투어 프로그램 일정)

- 이론가 매칭 프로그램 : 입주 작가의 창작 역량 강화 및 외부 인적 네트워크 기회를 제공을 위해 타 분야 이론가 미팅 기회를 제공하고 비평문 생산

순번	작가	이론가	이론가 직책	원고제목
1	고영택	이선영	미술평론가	타자의 목소리들을 받아쓰기
2	김성운	정재호	세종대학교 회화과 교수, 회화작가	기억을 통한 '우리'의 구성과 김성운의 회화적 대피도
3	김준	임태훈	미디어 연구가	방음벽 너머의 사운드시스템
4	김희연	백기영	경기문화재단 문예지원팀 수석학예사	소외된 도시 공간의 의인화(擬人化)된 풍경
5	노기훈	이대범	미술평론가, 전시기획자, 입주 작가	노기훈 작업에 관한 짧은 17개의 주석
6	방&리	신보슬	토탈미술관 책임큐레이터	테크놀로지 기반 사회의 허상에 대한 날 선 크리티크 -당연하다 생각했던 것들에 대해 질문하기
7	배미정	이관훈	사루비아 다방 디렉터	저 너머의 원형(구멍)을 찾아서
8	앙드레 마에노	우아름	미술비평가	앙드레 마에노 : 가능세계를 위한 장치들
9	양주희	박천남	성곡미술관 학예연구실장	양주희: 공존을 위하여
10	오재우	고동연	미술사가	선택의 자유: 오재우가 바라본 우리 시대의 물질문화
11	이설야	이성혁	문학평론가	실험적 정치시의 시도 - 이설야론
12	이수영	김남수	안무비평가	활쏘기 속에서 놀기, 활쏘기와 함께 놀기, 이수영 작가의 <활(弓)의 목소리_활쏘기 퍼포먼스>
13	정승	홍경한	월간아티클 편집장	자본주의 사회에 숨겨진 비합리성, 예민하게 적시된 인간소외와 무력감
14	정지현	정현	아시아문화개발원 정보원 연구원, 미술비평	유토피아를 위한 예외상태의 장소들
15	조해준	이은정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컬리지 교수	좌대와 작품
16	조현선	류동현	독립큐레이터	삶과 기억의 궤적을 좇는 자유분방한 여정
17	최영	이선영	미술평론가	시각의 투명성을 교란하는 몸의 불투명성
18	ETC	고동연	미술사가	ETC식의 백투더 퓨처

(2014년 이론가 매칭 결과)

- 창작지원 프로그램 : 입주 작가의 지역연계 프로젝트에 대한 예산지원(공모/심사)

순번	작가명	프로젝트명	구분	비고/전시 및 시연
1	김희연, 배미정, 조현선, 최영	진경공원	회화 작가 협업 전시, 지역 연계	2014.12.05(금)~12.19(금) @A동
2	노기훈	Red Nation	출판, 지역 연계	
3	백승기	셀프 동네 영화제	영화 제작, 지역 연계	2014.01.23(금) @H동
4	고영택	보이지 않는 것의 무게	영상 제작, 지역 연계	-
5	오재우	Frog Jump	영상 및 사진촬영, 지역 연계	-
6	이하람	두근두근 인천산책	전시, 지역 연계	2014.09.18(목)~10.05(일) @B동
7	정지현	The Darkside	사진 촬영, 지역 연계	-
8	김준	Silence Sound	사운드 설치 작품 제작, 지역 연계	2014.10.17(금)~10.19(일) @E동
9	ETC	X를 찾아서	시나리오 제작, 지역 연계	2014.10.17(금)~10.19(일) @E동

○ 2009~2015년 아트플랫폼 입주작가 현황(총괄)

구분	국내			국외	합 계 (선정)	비고 (팀)	
	인천	인천외	소 계				
2009[Pilot]	11팀11명 (40%)	16팀20명	27팀 31명	1팀 1명	28팀 32명	장기	2
						중기	0
						단기	26
2010[1기]	7팀7명 (24%)	20팀25명	27팀 32명	1팀 1명	29팀 34명	장기	16
						중기	10
						단기	2
2011[2기]	8팀8명 (22%)	19팀24명	27팀 32명	8팀 10명	35팀 42명	장기	16
						중기	11
						단기	8
2012[3기]	8팀8명 (21%)	18팀30명	26팀 38명	10팀 11명	38팀 51명	장기	14
						중기	11
						단기	11
2013[4기]	5팀5명 (13%)	19팀21명	24팀 26명	9팀 14명	36팀 43명	장기	18
						중기	6
						단기	9
2014[5기]	8팀8명 (25%)	16팀21명	24팀 29명	6팀 6명	32팀 37명	장기	18
						중기	6
						단기	6
2015[6기]	10팀15명 (26%)	19팀22명	29팀 37명	9팀 10명	38팀 47명	장기	20
						중기	6
						단기	12
합 계	57팀62명	127팀163명	184팀 225명	44팀 53명	236팀 286명	장기	104
						중기	50
						단기	74

※ 연고는 작가 개인(단체)의 주소지(집, 작업실)을 근거로 산출하였음

○ 2009~2015년 아트플랫폼 입주작가 현황(장르별)

구분	시각			공연			문학/연구			합 계 (입주)
	국내	국외	소계	국내	국외	소계	국내	국외	소계	
2009[Pilot]	20팀26명	1팀1명	21팀 27명	-	-	-	5팀5명	-	5팀 5명	28팀32명
2010[1기]	23팀27명	1팀1명	24팀 28명	2팀3명	-	2팀 3명	2팀2명	-	2팀 2명	28팀33명
2011[2기]	19팀19명	6팀8명	25팀 27명	5팀10명	2팀2명	7팀 12명	2팀2인	-	3팀 3명	35팀42명
2012[3기]	22팀22명	8팀9명	30팀 31명	3팀15명	1팀1명	4팀 16명	2팀2명	-	2팀 2명	36팀49명
2013[4기]	17팀19명	7팀12명	24팀 31명	4팀4명	1팀1명	5팀 5명	3팀3명	1팀1명	4팀 4명	33팀40명
2014[5기]	18팀21명	6팀6명	24팀 27명	3팀5명	-	3팀 5명	3팀3명	-	3팀 3명	30팀35명
2015[6기]	16팀16명	9팀10명	25팀 26명	8팀16명	-	8팀 16명	5팀5명	-	5팀 5명	38팀47명
합 계	173팀 197명			29팀 57명			24팀 24명			228팀 278명
	국내 135팀150명/국외 38팀47명			국내 25팀53명/국외4팀4명			국내 23팀23명/국외 1팀1명			

※ 공모시 심사를 위해 접수된 장르 구분이며, 작업특성을 정성적으로 반영한 장르구분은 아님

3) 전시사업

○ 인천아트플랫폼 전시 사업은 레지던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프리뷰전시, 오픈스튜디오, 결과보고전시와 프로젝트성 전시(평화미술프로젝트 등)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음

- 프리뷰전시 : 인천아트플랫폼 입주와 동시에 그간 활동을 보여주고 입주작가를 외부에 소개하는 전시

- 플랫폼페스티벌&오픈스튜디오 : 매년 기획 의도에 맞춰 2009~해당년도 의 입주 작가 중 일부가 참여하는 전시와 해당년도 입주 작가 스튜디오를 공개하는 ‘오픈 스튜디오’를 동시에 진행

- 결과보고전시 : 스튜디오에 머물며 진행한 창작활동의 결실을 퇴실 전에 공개하는 전시

연도	전시기간	장소	전시명
2009	09.25-11.30	A,B,C	개관기획, 다시개항
	09.25-11.30	A	인천, 일상의 발견
	12.04-12.13	A	우키요에 속 풍경화, 호쿠사이와 히로시게
	12.11-12.19	B,C	레지던시 특별전 <이얍!IAP>
	12.30-01.31	A,H	김인경, 인천으로의 고요한 여행
2010	02.19-03.31	A	이인청, 달려! 달려! 달려!
	03.17-04.11	B	레지던스 퍼레이드_I.고양미술창작스튜디오

	04.07-04.29	A,H	세상을 드로잉하다
	04.23-05.16	B	레지던스 퍼레이드_II.창동미술창작스튜디오
	05.03-05.31	A,H	허진웨이 현실의잔광
	06.03-06.13	B	<배다리> - 또 하나의 인천 : 삶의 가치와 맥락을 잇다
	06.02-06.20	A	정진아 전_Frying & Flying
	06.18-07.11	A,B	레지던스 퍼레이드_III. 경기창작센터
	07.01-07.18	A,H	인천아트플랫폼 기획 프로젝트 III_PPP_오유경전
	07.21-08.29	B,야외	인터_뷰(Inter_View)
	09.03-09.26	A,B	레지던스 퍼레이드_IV.난지미술창작스튜디오
	10.02-10.10	B,야외	2010 인천광역시 박물관축제
	10.15-11.21	B,야외	2010인천아트플랫폼 기획전_접속
	10.15-11.07	A	인천아트플랫폼 기획 프로젝트IV_PPP [김병걸_Transfer]
	10.20-11.07	C	7th양승수 개인전_TREADMILL
	11.26-02.25	B,D	기억애(Memophilia)
	12.23-01.09	A	고창선전_Toe the Line/ 출발선에 서다.
2011	03.12-05.29	A,B	2011 인천상륙작전
	06.10-06.24	B	[김태준 개인전] 타임캡슐-기억할 수 없는 기억
	06.10-07.17	H	윤석남 개인전 <핑크룸 5>
	06.22-06.28	C	정수모 작품전 <대지의 소리>
	07.01-07.17	B	인천아트플랫폼 2기 입주작가 4인 그룹전 Show·Room
	07.01-07.17	A	2011 인천아트플랫폼 김태은 지역연계 프로젝트 보고전<영웅들의 섬>
	07.22-08.28	B	제1회 인천평화미술프로젝트 <분쟁의 바다 화해의 바다>
	08.19-09.04	C	타케시 모로_신포시장 사람들 & 조슈아 로버츠_Game On
	09.02-09.30	G1,G2	"이얍(IAP)! 신나는 여름 예술캠프" 결과보고전시
	09.23-11.06	A,B	PLATFORM FESTIVAL
	11.23-11.29	G	Voicetelling itself
	10.21-11.03	C	Minor Adjustments 사소한 조정
	11.05-11.11	C	고제민 개인전 <색을 벗다>
	11.19-01.08	A,B	유어인천 遊於仁川 You're Incheon : 인천에서 노닐다
	11.18-11.27	G2	페르난다 치에코 개인전"A FISHERMAN'S THRONE 어부의 의자"
	12.20-01.08	H	장소14/ PLACE14
2012	01.13-01.16	A	홍성훈 원장의 삶과 여행 이야기
	01.19-02.26	ABCEI,H	2기 입주작가 결과보고전 <플랫폼 아티스트>
	03.08-06.10	A,B	2012 입주작가 프리뷰전 <해안동 10-1>
	06.12-06.18	H	고제민 개인전 <북성포구 - 노을전>
	06.21-07.08	H	예술의 썬얼 : 읍쓰양
	06.19-07.08	B	우주다방(宇宙多房)
	07.13-09.16	A,B,H	2012 플랫폼 페스티벌&오픈스튜디오 <인천 앞바다에 왜 사이다가 떴을까?>
	09.25-11.25	A,B,C	2012 인천평화미술프로젝트 <평화의 바다_물 위의 경계>
	12.04-01.13	H	즐거운 나의 집-노동자들의 도시, 인천_김수환전
	12.21-01.13	B	어떤 동네 이야기
2013	01.18-02.22	A,B,C,H	3기 입주작가 결과보고전 <2012 플랫폼 아티스트>
	03.07-05.26	A,B,H	4기 입주예술가 프리뷰전 <2013 플랫폼 액세스>

	03.14-03.31	F	[roundabout 전시 프로젝트 04 김학량 다시, 그대에게 가는 길]
	03.07-05.05	A	2013 플랫폼 액세스 프로젝트 백인태 로맨스그 끝나지 않는 이야기
	04.30-05.05	E1,H	2013 플랫폼 창고세일
	05.28-06.30	H	파란 트럭 섬의 이야기
	08.14-10.06	A,B,G1,H	2013 정전60년 특별 기획전 "백령도 525,600 시간과의 인터뷰"
	10.09-10.20	A	2013인천_JAPAN_WEEK_ 한일영화홍보전단비교전
	10.25-12.15	A,B,C,E,H	2013 플랫폼 페스티벌&오픈스튜디오
	12.18-12.23	H	4기 입주작가 백인태 <반짝 반짝 반짝 반짝>
2014	01.16-02.23	A,B,H	2013 플랫폼 아티스트 인천아트플랫폼 4기 입주예술가 결과보고
	03.06-05.31	A,B,H	2014_5기 입주작가 프리뷰전 <첫 만남, '텅 빈' 우정의 시작>
	06.16-06.23	B	DESART MOB 2014 인천아트플랫폼 국제교류기관교류 <호주 노마딕 레지던시> 전시
	09.13-09.19	G1	당신을 말한다
	09.18-10.05	B	두근두근 인천산책
	09.23-09.30	G1	1n - 0ut
	10.01-10.07	G1	신태수 개인전 <섬_서해 5도>
	10.07-10.12	G1	이진영 개인전
	10.17-11.16	A,B,E,H	<2014 플랫폼 페스티벌> 5기 오픈스튜디오+네트워크 전시
	10.22-10.31	G1	최경태 개인전 _ DOLL
	11.01-11.12	G1	경지연 개인 _ 제자리에서 떠나는 상상의 유목 Potrey Magic

(2009~2014 아트플랫폼 내 기획 전시 현황)



4) 공연사업

○ 인천아트플랫폼 공연 사업은 공연분야 입주작가들의 프로젝트(쇼케이스, 낭독공연, 공연 등)를 중심으로 운영되며, 시민을 위한 공연도 자체기획으로 운영하였음

- 플랫폼인큐 : 연구, 워크숍, 리서치, 연습, 쇼케이스, 낭독 등 작품 창작을 위한 새로운 실험을 시도하는 예술가 단체 프로젝트(입주작가 중심)

- 플랫폼아웃큐 : '플랫폼인큐'와 연계된 2단계 제작사업으로 제작된 창작 실험과정을 거친 프로젝트를 공연장 및 공간에서 실연될 수 있도록 기회 제공과 프로젝트 지원사업

- 플랫폼초이스 : 인천아트플랫폼의 지향점과 맞는 공연단체 및 프로젝트를 지원/협력하여 진행하는 기획협력 프로젝트

- 플랫폼데이 : 매달 컨셉을 정하여 다양한 장르의 예술을 구성/진행하는 축제성 프로그램

○ 2014년 플랫폼 초이스

구분	일자	공연팀명	공연명	장소	관객(명)
1	4/5~5/6	Analog&Digital Theater	한국근대문학극장:술권하는 사회, 탈출기	C동	150
2	4/12~4/13	칙칙폭폭 인형극단	길,동무,꿈	C동, 야외	446
3	4/26~4/27	프로젝트 남김	런닝머신	C동	76
4	5/17	박나훈무용단	모르는 네사람 만지기	B동	109
5	5/23~5/25	씨니킴	풍경	C동	95
6	6/20~6/21	불세출	불세출콘서트:우연의 음악	C동	120
7	6/21	극단 기린	사자의 독후감	야외	110
8	6/28~6/29	바이브무용단	100W220W	C동	100
9	7/5~7/6	댄스컴퍼니 명	시간은 무게다	공연장	105
10	7/5~7/6	도토리	몽이다	야외	345
11	7/19~7/20	서울기타콰르텟	Happy concert	공연장	1443

○ 2014년 플랫폼 인큐

구분	일자	작가명	장소	인원
1	5/15~5/17	김성용	공연장	60
2	5/7~7/6	그룹 S	공연장	70
3	7/5~7/6	그룹 S “길”	야외	132
4	7/25~7/29	창작그룹 노니 1차 창작 워크숍	공연장	17
5	7/27	Comma,And “택도 없는 해소를 위한 의식” 1차 쇼케이스	G1	87
6	8/3	Comma,And “택도 없는 해소를 위한 의식” 2차 쇼케이스	G1	102

구분	일자	작가명	장소	인원
7	8/2~8/23	MU Teatro “공간과 창조 시민 워크숍”	공연장, 야외	32
8	8/15	김성용 창작 비공개 쇼케이스	공연장	27
9	8/23	MU Teatro “파블로의 하루” 공연	B, 야외	126
10	9/21	창작그룹 노니 비공개 쇼케이스	공연장	20
11	10/18	종합예술인 박민선	공연장	48
12	10/23	창작프로젝트그룹 영희야놀자	공연장	20
13	10/13~11/13	홍은지, alive arts co_mo	공연장	35
14	12/13~14	그룹 S "당신과 나, 당신들과 우리들"	공연장	78
합계				854

○ 2015년 공연분야 입주작가 프로젝트(예정)

일정	작가	프로젝트 명	세부 내용	장소
4/30	이영주	스카이 토크	부처와 예수가 스카이프를 통해 동서양의 종교의 흐름에 대하여 위트 있는 대화를 나누는 퍼포먼스.	A동
5/24	김성배	접신(Possession)	인천 황해도 굿을 음악, 사운드 아트, 무용의 동시대적 감각으로 구현	트라이볼
5/30	판소리 하다	명작을 만나다	헨릭 입센의 '유령', 도스도예프스키의 '죄와 벌' 문학을 판소리로 재구성	C동
5/31	김성용	Help	Bal Malhada Dance Group와 한국 안무가 김성용의 협업 공연	트라이볼
6/7	앤드씨어터	근대문학극장	근대문학작품을 8명의 연출가가 참여하여 릴레이 형식의 공연 진행	C동
6~8월 중	배인숙	맛 익는 소리	인천의 막걸리를 익히는 과정을 사운드로 채집하여 설치	G1
9~11월 중 예정	우현주	무제	종묘제례악과 미디어 인터페이스 결합을 통한 디지털 종묘제례악 쇼케이스 진행	C동
	얼라이브 아츠코모	창작워크숍	근대적인 건축물, 공간에 디지털 언어와 몸의 언어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한 흔적 남기기 워크숍	A동



5) 문화예술교육 사업

○ 인천아트플랫폼 교육사업은 국내 외에서 예술 활동으로 인정받고 있는 다양한 장르의 입주 예술가들의 창작활동이 연계된 독창성 있는 프로그램으로 예술가들이 직접 교육프로그램의 기획에 참여하는 특징이 있음

- 2014 토요일의 예술학교 : 주 5일 수업제 시행에 따라 어린이 및 청소년의 창의력과 감수성 개발을 위한 장기적인 주말 교육 프로그램

	1주(3.15)	2주(3.22)	3주(3.29)	4주(4.5)	5주(4.12)
분야	문학 이하람	문학 김준	시각미디어 노기훈	시각미디어 정지현	시각미디어 최영
1기 이야기 실험실	오리엔테이션 이야기주머니 만들기	이야기 소리로 담기	이야기사진으 로 담기(1)	이야기사진으 로 담기(2)	이야기 드로잉(1)
	6주(4.19)	7주(4.26)	8주(5.3)	9주(5.10)	10주(5.17)
	시각미디어	시각미디어	시각미디어	시각미디어	시각미디어
	최영	꾸러기스튜디오 백승기	꾸러기스튜디오 백승기	꾸러기스튜디오 백승기	꾸러기스튜디오 백승기
	이야기 드로잉(2)	이야기 액션 (1)	이야기 액션 (2)	이야기 액션 (3)	이야기 액션 (4)
	1일(8.11)	2일(8.12)	3일(8.13)	4일(8.14)	
분야	공연(플라멩코), 퍼포먼스	공연(플라멩코), 퍼포먼스	공연(플라멩코), 퍼포먼스	공연(플라멩코), 퍼포먼스	
	무떼아프로, 박민선	무떼아프로, 박민선	무떼아프로, 박민선	무떼아프로, 박민선	
방학예술 캠프	올라! Hola! 플라멩코	올라! Hola! 플라멩코	올라! Hola! 플라멩코	올라! Hola! 플라멩코	
	싸와디캡! 가상 Show	싸와디캡! 가상 Show	싸와디캡! 가상 Show	싸와디캡! 가상 Show	

- 전시연계프로그램 : 인천아트플랫폼 기획전시(프리뷰 등)와 연계하여 전시
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기획 운영

2012 입주작가 프리뷰전 <해안동 10-1> 연계 교육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간 : 2012.03 ~ 06 ▶ ‘영어해설프로그램’ - 영어로 전시감상 후, 토론 ▶ ‘드로잉 워크숍’ - 벤자민 필립스와 드로잉 워크숍 ▶ ‘작가와의 만남’ - 입주작가와의 만남, 토론, 스튜디오 방문 ▶ ‘4컷 이야기’ - 4점의 작품을 골라 상상의 이야기로 엮서 만들기
인천평화미술프로젝트 <평화의 바다_물 위의 경계> 전시연계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간 : 2011.09 ~ 11 ▶ ‘수능연계프로그램’ - 합격팔찌 만들기, 평화엽서 그리기, 감상 활동지



6) 기타 프로젝트성 사업

○ 2012 대안공간-창작스튜디오 아트페스티벌(AR Festival) 참가

- 기 간 : 2012. 04. 21(토) ~ 04. 25(수)
- 장 소 : 파주출판도시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다목적홀
- 주최/후원 : (사)비영리전시공간협의회/한국문화예술위원회
- 국내 비영리전시공간 18곳, 창작스튜디오 18곳 등 36개 비영리 전시 공간 참여 콘텐츠 마켓 형식의 아트페스티벌
- 홍보부스 전시 및 기관홍보(인천아트플랫폼 홍보동영상 상영, 기관소개 리플렛 배포, 레지던시 입주작가 홍보 등)

○ 플랫폼 창고세일(2012,2013,2014)

- 기간 : 2013. 4. 30(화) ~ 5. 5(일), 오전 11시~오후 6시
- 장소 : 인천아트플랫폼 공동작업실, H동 커뮤니티룸
- 후 원 : (사)한국미술협회 인천광역시지회, 인천민족미술인협회, 한국 GM, 카페다설, 홍예문컴퍼니
- 주요행사 : 50만원 내외의 작품, 화구 등 전시 및 판매
- 부대행사 : 작가 윤영미의 독수공방 <반짝반작 주얼리 팩토리>, 홍예문 컴퍼니의 <출장다방 꿈꾸는 은하수, 핸드메이드 베이스 SUSBass>
- 수익금의 일부는 미판매작품 구입, 구입작품 및 수익금 인천의료원에 기부 : 예술작품을 통하여 어려운 이웃을 돕고 사회공공의 의미를 실현
- 참여작가 67명, 작품 100여점 참여 및 전시

○ 2014 플랫폼 페스티벌 ‘예술로 번짐(Burn-Gym)’ : 문화체육관광부 2014년도 산업단지·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에 선정되어 기존 플랫폼 페스티벌 확대 운영하여 종합 예술 축제화 함

- 사업기간 : 2014년 10월 17일(금) ~ 10월 19일(일)
- 장 소 : 인천아트플랫폼 일대
- <창작지원> 공연분야 13개, 시각분야 9개 프로젝트 지원
- <제작지원> 공연분야 3개작 제작
- <축제> 기획공연(18개 작품 참여), 기획전시(26 아티스트 참여), 기획 프로그램 (4개, 51팀 참여), 부대행사(2개, 27 아티스트 참여)
- 관객수 총 10,656명

4. 마치며

창작공간(레지던시)은 폐교부터 근대문화유산에 이르는 광범위한 영역의 유휴 공간들을 문화적으로 재해석하여 공공적인 도시재생을 가능케 하는 아이콘으로 떠올랐다. 현재 전국 210여개의 공사립 창작스튜디오가 운영 중인데 이중 100여 곳이 활발하게 운영 중이다¹⁾. 최근에는 ‘도시재생특별법(2013.12.5.)’ 등 법과 제도적 뒷받침에 힘입어 ‘경남예술창작센터(2012)’, ‘대전테미예술창작센터(2014)’와 같은 지자체별 창작공간을 오픈했고, 당인리 문화창작발전소(예비 타당성 조사 중)와 같은 대규모 창작공간 건립을 계획 중이다.

인천은 글 앞머리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2000년 초반부터 유휴공간 활용을 통한 도시재생과 지역커뮤니티 활성화를 목표로 인천아트플랫폼을 건립하였다. 공식·비공식적으로 일주일 평균 1회 이상²⁾ 벤치마킹을 위해 외부 기관이 방문하는데 이는 약10년에 걸쳐 민·관 거버넌스 체계를 운영하면서 지속가능한 발전모델을 개발한 인천아트플랫폼이 창작공간 건립 및 운영을 위해 현재도 유의미한 사례로 볼 수 있는 이유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관 후 5년 간의 인천아트플랫폼의 운영을 바라보는 최근 외부의 평가는 대체로 “열심히 많은 것을 했는데, 어떤 뚜렷한 성과를 냈는지는 평가하기 어렵다.”, “예술가 중심의 창작레지던시와 시민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 너무 다양한 사업을 하다 보니 정체성이 모호하다”, “인천차이나타운 등과 비교했을 때 볼거리가 부족하고 황량하다”라는 것이 중론이다³⁾.

2014년 11월 전국의 대표적인 국공립 창작공간들이 서울시청에 모여 세미나를 진행하였는데, 이 자리에서 토론된 창작공간 운영의 어려움은 대체적으로 앞서 언급한 세 가지 평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이였다. 아래 표는 창작공간을 크게 네 가지로 나누는 분류법을 설정한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 국공립 창작공간은 이 모든 기능을 빠짐 없이 수행하며, 운영 시 어느 것 하나로 집중하지 못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인천아트플랫폼은 이 네 가지 분류 이외에 구도심 활성화라는 관광적 기능이 추가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1) 창작스튜디오 현황 조사 및 지원 방안 연구(2013.한국문화관광연구원)

2) 2014 벤치마킹을 위한 참관 인원 : 30여개 기관, 600여명(2014년 실적보고, 공문을 통한 방문만 집계)

3) 2015 인천아트플랫폼 발전 방안모색을 위한 자문회의(15.2.12, 비공개토론회)

분 류	세부내용
작업공간제공	작업공간을 필요로 하는 예술가들에게 작업실을 제공하여 안정적인 창작환경 지원
교류와 소통을 통한 새로운 담론 형성의 기능	숙박과 거주 공간을 갖춘 레지던스의 경우 작업실의 개념과 더불어 예술가들의 교류와 소통의 기능을 중요시 함. 특히 이들의 교류와 소통으로 예술에 대한 새로운 담론이 형성되어 거시적 안목으로 보았을 때 예술적 진보를 도모할 수 있음
예술적 컨버전스의 장으로서의 기능	예술 창작스튜디오들의 현재 추세는 다장르에 대해 오픈하고 있기 때문에 개성이 뚜렷하던 예술 장르들이 점차 복합장르로서 융합되는 계기가 마련됨. 또한 각 장르에 대해서는 예술가들의 협업을 통한 결과물들이 산출 될 수 있기 때문에 무한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는 장으로써 기능함
지역사회의 문화센터로서의 기능	예술가들에게 작업공간도 제공하고 지역사회 주민들의 워크숍, 세미나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예술가에게는 예술창작의 기회를, 지역민들에게는 예술을 접할 기회를 제공함. 현재 레지던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예술창작스튜디오들이 이 같은 역할을 함

(창작스튜디오의 기능별 분류)⁴⁾

인천발전연구원을 거쳐 인천문화재단에서 인천아트플랫폼 건립과 운영에 대해 연구하고, 중구미술문화공간 운영준비TF팀장을 지낸 이현식(현 인천문화재단 한국근대문학관 관장)은 “인천아트플랫폼을 둘러싸고 오해도 없지는 않다. 가장 큰 오해 중 하나가 이곳을 일종의 미술관으로 생각하는 경향이다. 그러나 인천아트플랫폼은 미술관도 갤러리도 아니다. 미술관이 수행하는 전통적인 역할인 시각 예술과 관련한 문화유산의 수집과 감상, 계몽과 연구 기능이 인천아트플랫폼에는 없다. 더구나 상업갤러리는 더더욱 아니다. 이곳은 시각 예술을 중심으로 하고는 있지만 다양한 장르의 예술들이 교류하고 소통하는 공간이다. - 중략 - 또 하나의 심각한 오해가 이곳을 관광지로 생각하는 경우이다. 물론 인천아트플랫폼이 관광지가 되지 말라고 하는 법은 없다. 인천아트플랫폼에서 볼거리를 찾을 수도 있고 이벤트가 열릴 수도 있겠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그것이 관광객을 유인하기 위해 고안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아는 일이다. 인천 아트플랫폼을 찾아오기 위한 방문객이 늘어나는 것이야 환영할 만한 일이고 또 그런 방향에서 더욱 노력해야 하겠지만 이곳이 먹고 즐기는 관광지로서 인지되는 것은 곤란한 일이다”⁵⁾ 라고 인천아트플랫폼 운영

4) 창작스튜디오 현황 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2013.한국문화관광연구원)

5) 인천담론-인천정담(리토피아.2012.p98-99)

에 대한 우려와 과제를 설명하고 있다.

차이나타운에 주말이면 발 딛을 틈이 없게 된 것이 최근 2-3년 전이며 문화 예술을 품은 카페, 공방 등 다양한 공간들이 중구 신포동 일대에 몇 집 건너 하나씩 상권을 이룬 것도 최근 몇 년 안에 일어난 현상이다. 인천시 중구청의 문화관광 정책이 이와 같은 발전의 중심에 있으나 낡은 해안동 1가 블록이 인천아트플랫폼 개관 이후 지역문화 활성화의 코어(core)로써 역할을 한 것 또한 분명한 사실이다. 이제는 인천아트플랫폼 일대가 관광으로 활성화되어 북적거린다. 역설적으로 이제 이곳은 고즈넉한 곳이 되어 버렸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이곳도 주변처럼 북적거리기를 원한다. 인천아트플랫폼이 관광지가 되지 말라는 법은 없다. 하지만 활성화를 위해 주변과 대동소이한 방식의 이벤트와 유인책을 통해 획일화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길이 생긴 이후에야 너도나도 신나게 달릴 수 있었다. 세월이 흐른 다음에는 시대가 어디로 가야 했는지 누구나 알 수 있지만, 막상 자신이 살고 있는 시대 속에서는 그 길이 잘 보이지 않는다. 그때 풀섶을 헤치며 새로운 길로 나선 사람을 선구라 할 수 있어도 후배보다 덜 각성된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다."⁶⁾

인천아트플랫폼은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생산된 가치 있는 예술이 지역사회(시민)와 소통하기를 바라며 탄생한 공간이다. 이 내재된 목표가 초심을 갖고 성공적으로 순항할 때 개항을 통해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항구 도시 인천의 문화다양성 가치를 유지하고, 구도심의 문화적 재생이라는 거시적인 목표도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6) 유홍준 <명작순례>(놀와, 2013)

발제 2

인천아트플랫폼, 복합문화예술 공간인가? 창작 공간인가?

공주형 | 한신대학교 교수

인천아트플랫폼, 복합문화예술 공간인가? 창작 공간인가?

공주형 | 미술평론, 한신대학교 교수

2009년 개관한 인천아트플랫폼이 햇수로 운영 5년째를 맞이하고 있다. 예술을 매개로 장소성과 역사성을 회복하고자 한 의미 있는 시도로 주목을 받으며 출범했던 인천아트플랫폼의 설립과 운영은 지역 예술 지형의 변화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생각된다. 무엇보다 눈에 띄는 것은 인천 이외의 지역에서 활동했던 예술인들의 유입이다. 특히 인천아트플랫폼 입주를 계기로 지역의 예술 주체들 혹은 공간들과 예술적 협업을 모색하고, 프로그램 종료 이후에도 지역 내 작업 공간을 마련하여 활동을 지속해 나가고 있는 몇몇 입주 작가들이 지역 예술계에 제공한 활력은 관심을 둘 만하다. 여기에 덧붙여 인천아트플랫폼 설립 이후 인근에 문을 여는 규모와 성격이 다채로운 예술 공간들의 확산도 시간을 두고 의미를 살필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인천아트플랫폼에 대한 비판도 근래에 들어 이어져 왔다. 2013년에는 지역적 네트워크를 내세운 인천아트플랫폼의 ‘플랫폼 페스티벌 & 오픈스튜디오, 인천아트구락부’의 진정성을 묻는 패러디 포스터와 익명의 편지가 등장했고, 입주 작가 28명과 인천 문화 주체가 인천아트플랫폼의 운영 방식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그런가 하면 2014년에는 인천아트플랫폼의 기획 전시인《인천평화미술 프로젝트》展의 원활치 못한 진행 과정에 반발하는 일부 참여 예정 작가들의 입장 표명이 잇따랐고, 조직위원회의 전시 중단 선언도 있었다. 인천아트플랫폼과 인천의 예술 주체들, (레지던시 프로그램) 입주 작가, (기획 전시) 참여 작가들의 갈등에서 드러난 낱알의 문제는 특수하고, 개별적인 상황에서 발생한 별개의 사건이 아니라 인천아트플랫폼의 정체성과 관련된 문제적 맥락에서 도출된 유사 사건들은 아닐지 생각해 보았다.

인천아트플랫폼, 복합문화예술 공간

인천아트플랫폼 설립은 ‘차이나타운 조성’, ‘근대 건축물 밀집 지역 기획 단위 계획’, ‘신포 문화의 거리 조성’ 사업과 함께 계획된 인천시의 도시 재생 사업의 일환이었던 ‘개항기 근대 건축물 보전 및 주변 정리’ 사업으로 추진되었다. 이후 이 사업은 ‘미술 문화 공간’ 사업으로 계획을 구체화하였고, 계획·설계·공사·명칭 공모를 과정을 거쳐 인천아트플랫폼으로 개관되기에 이르렀다.

인천아트플랫폼(舊 중구미술문화공간)은 인천광역시가 구도심 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중구 해안동의 개항기 근대 건축물 및 인근 건물을 매입하여 조성한 **복합문화예술 공간**입니다.

(재)인천문화재단이 운영하는 인천아트플랫폼은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시각예술을 비롯한 다양한 장르의 예술가와 연구자들이 창작과 연구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새로운 **예술 창작의 인큐베이팅** 역할을 담당해나가고자 합니다.⁷⁾(강조 인용자)

인천아트플랫폼은 홈페이지에 명시하고 있듯이, ‘복합문화예술 공간’이며, 창작 공간과 유사한 ‘예술 창작 공간 인큐베이팅’에 운영 방점을 두고 있다. 인천아트플랫폼의 이러한 지향은 지역 내 유희시설에 대한 가치가 환기되고, 도시 재생의 담론이 확산되면서 조성되었던 ‘창작 공간이 포함된 복합문화 공간’의 그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 새롭게 확장된 개념의 창작 공간이라는 점에서 인천아트플랫폼의 출범은 기존의 창작 공간과는 변별성을 주목받았다. 하지만 창작 공간이 복합문화예술 공간으로 역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설정된 운영 목표의 타당성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⁸⁾ 같은 맥락에서 복합문화예술 공간을 지향하는 인천아트플랫폼의 주요 과제로 예술 창작의 인큐베이팅이 적절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복합문화예술 공간의 핵심은 서로 다른 층위의 예술 생산과 소비를 유기적 소통과 연결의 총체적 기능⁹⁾에 있기 때문이다.

7) 인천아트플랫폼 홈페이지(<http://www.inartplatform.kr/artplatform/mission.php>)

8) 박신의, 「창작스튜디오의 역할 변화에 따른 정책 구도와 타당성」, 『문화정책논총』, Vol.27 No.2, 2013.

9) 이범재·조용석, 「복합문화공간 건축계획에 관한 연구- 로비공간의 표현을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 Vol.14 No.2, 1994.

인천아트플랫폼, 창작 공간

인천아트플랫폼은 예술 창작의 인큐베이팅을 주요 과제로 삼고 있지만 다음과 같이 미션을 세분화하고 관련 사업과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

1. 새로운 예술 창작 발전소입니다.
2. 국제 네트워크 형성의 플랫폼입니다.
3. 발랄한 문화시민과 함께 합니다.
4. 지역문화 활성화의 코어(core)입니다.¹⁰⁾

첫 번째 미션과 관련하여 인천아트플랫폼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입주 작가 선발, 플랫폼 살롱 및 리서치 투어, 포트폴리오 및 영상 제작, 이론가 매칭, 결과보고 전시, 프리뷰 전시, 프로젝트 창작 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 반면 2010년 기획 전시《접속》展과 2011년 ‘커뮤니티 댄스 워크숍’을 제외하고 두 번째 미션은 자체 사업과 프로그램으로 구체화되지 못했다. 한편 세 번째 미션과 관련하여 인천아트플랫폼은 학교 연계, 문화행정 연수, 방학예술캠프, 자원봉사, 전시연계 등 교육 사업과 프로그램은 진행해 왔다. 하지만 대부분의 관련 사업과 프로그램은 ‘기획 프로그램(시민참여형 전시, 공연, 대안예술 등의 기획 프로그램 강화를 통한 대안적인 문화공간 구축, 시민대상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강화 및 문화매개자 양성’ 등을 통해 역동적 시민문화를 형성하겠다는 출범 초기의 취지와 거리를 둔 것이었다. 마지막으로 미션과 관련하여 인천아트플랫폼은 지역적 의제인 평화를 화두 삼은 활《인천평화미술 프로젝트》와 ‘창고세일’ 등을 세 차례 진행 한 바 있었으나, 2014년에는 운영이 중단된 상태이다. 이상을 통해 지역 사회 내에 복합문화 예술 공간으로 역할하기 위해 수립되었던 미션 중에서 출범이후 안정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사업과 프로그램은 인천아트플랫폼이 주요 과제로 설정하고 있는 예술 창작 인큐베이팅 즉 레지던시 프로그램과 관련된 것들로 확인된다. 인천아트플랫폼의 사업은 전시, 공연, 교육, 레지던시, 아카이브로 사업이 범주화 되어 있기도 하다.¹¹⁾ 개관 초부터 인천아트플랫폼은 레지던시 관련사업 뿐 아니라 다른 범주의 사업들에서도 입주 작가들의 참여가 눈에 띄었다. 2010년 인천아트플랫폼의 교육 사업은 레지던시 입주 작가 전담 프로그램이

10) 인천아트플랫폼 홈페이지(<http://www.inartplatform.kr/artplatform/mission.php>)

11) 자료 구입 중심으로 운영된 사업인 아카이브는 논의에서 제외한다.

진행되기도 했고, 이후에는 토요일창의학교, 학교연계, 방학예술캠프 등 교육 관련 프로그램에 입주 작가들이 예술 강사들이 참여하고 있다. 이밖에도 2010년 기획자의 기획 의도가 드러나는《ppp》展, 《접속》展과 2011년 《유어인천》展 등 몇몇 전시를 제외한 입주 작가 참여 중심의 《결과보고》展 등은 기획 전시라기보다는 레지던시 관련 사업으로 분류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기획 전시 뿐 아니라 2011년 이후 기획 공연의 경우에도 입주 작가의 쇼케이스와 결과보고 공연들이 증가했다. 입주 작가 의존도가 높은 지난 5년간의 운영에서 인천아트플랫폼과 예술인 지원에 뜻을 두고 있는 창작 공간의 변별 점은 찾기 어렵다.

인천아트플랫폼, 창작 공간을 갖춘 복합문화예술 공간

복합문화예술 공간을 표방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창작 공간처럼 운영되어 왔던 인천아트플랫폼에 대한 지역 사회 내외의 다양한 이해와 기대의 시각이 존재하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인천아트플랫폼이 정체성이 모호한 채 지금처럼 운영된다면 한 편에서는 ‘지역 사회와 공감대를 제대로 형성하지 못하는’¹²⁾ 복합문화예술 공간의 한계를 비판할 것이고, 또 다른 한 편에서는 창작 공간의 전문적이지 못한 ‘레지던시 본연의 기능’을 문제 삼을 것이다.¹³⁾

인천아트플랫폼이 설립 초기 설정한 창작 공간을 갖춘 복합문화예술 공간이라는 정체성을 수정할 계획이 없다면, 기존의 조직과 운영에 대해 전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복합문화예술 공간의 운영 취지에 부합하는 기획이 가능한 전문 인력과 창작 공간의 운영을 위한 학예 인력을 중심으로 조직을 이원화하고, 운영 사업과 프로그램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해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지난 5년 분주했던 동선에도 불구하고, 인천아트플랫폼을 두고 오고 간 말과 글의 행간에는 운영 철학의 부재라는 난제가 숨어 있었다. 입주 작가 선정 기준 마련과 조직의 전문성 강화, 관장직 존폐 여부와 재원 확충 방안 마련, 지역 내 다양한 주체·기관들과 파트너십 구축과 지속가능한 사업 계획의 수립 등. 향후 과제로 풀어야 할 현안들은 인천아트플랫폼이 정체성과 방향성에 대해 충분히 고민 한 후 각론이 아니라 총론의 관점에서 유기적으로 접근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12) 박진영, “개항장 일대 도시재생사업 예산 낭비”, 인천일보, 2014. 10. 12.

13) 서진아, “아트플랫폼 독단적 운영”입주작가 반발”, 인천일보, 2013. 11. 27.

발제 3

인천아트플랫폼의 본질과 존재가치

홍경한 | 미술평론가, 경향아티클 편집장

인천아트플랫폼의 본질과 존재가치

홍경한 | 미술평론가, 경향아티클 편집장

국내 창작스튜디오의 개념과 전개

1990년대 후반 처음 등장한 이후 현재까지 우리나라엔 모두 124개(*2014년 기준 <문광부>: 지자체 위탁운영 39%, 민간 자체 운영 59%, 정부 위탁운영 2%: 이중 유희시설활용은 29%, 폐교활용 28%, 신축 27%, 폐산업시설활용 3%)의 레지던시 혹은 창작센터, 창작 공간, 예술인창작촌, 창작스튜디오가 이름만 달리 한 채 존재하고 있다.¹⁴⁾

이 중 인천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인천아트플랫폼’은 2009년 출범해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레지던시를 중심으로 기타 대시민 프로그램을 구동시키는 등, 작가 작업공간을 지원하는 현재진행형 예술창작지원 공간의 하나로 자리 잡아 왔다.(*창작스튜디오는 예술가들이 예술 및 문화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일정 기간 작업실을 옮겨 작업하며, 입주 기간 동안 거주 및 제작비용과 설비, 시설 등의 지원을 받는 공간을 말한다. 작업실 지원이라는 창작스튜디오가 1년 단위 공간 제공이라는 형태로 절충되면서 레지던시로 분류되기도 한다. 본 발제에서는 이해를 위해 혼용하여 표기한다.)

애초 창작스튜디오의 단초가 된 건 작가들의 열악한 경제적 상황이었다. 일반 경제발전과는 달리 작가들의 창작여건은 해를 거듭할수록 어려워졌고¹⁵⁾

14) 대표적인 공간으로는 국립현대미술관의 고양, 창동스튜디오가 있으며, 여기에 지자체에서 재단에 위탁 운영하는 춘천 시문화재단 창작공간 아르쥬, 경기문화재단의 경기창작센터를 비롯해, 경남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경남창작스튜디오, 대구문화재단의 거창창작스튜디오 등 다양한 레지던시(창작공간)들이 존치되고 있다. 서울시립미술관의 난지스튜디오, 청주시립도서관의 청주스튜디오, 서울시 관리공단의 청계창작스튜디오 등도 레지던시를 운영 중이다. 특히 서울시 서울문화재단은 금천예술공장, 신당창작아케이드, 서교예술실험센터, 잠실창작스튜디오 등, 모두 9개의 창작공간-특성화 공간-을 갖고 있다. 이들 창작 공간 혹은 창작스튜디오는 예술가가 장기 입주하되 교류 차원에서의 레지던시를 운영하고, 지역사회 연계 활동이나 도시 재생 등 대외적 효과가 큰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기준 아래 3개월에서부터 1년-3년 단위의 단, 중장기 입주형식을 수용하고 있다. 그러나 어느 형식이던 둘 다 예술 창작의 기반이자 창작 진흥의 거점이 된다는 전제는 유효하며 ‘예술가 육성’을 목표로 하나의 공간을 거점으로 다양한 사회적 영향 관계를 기대한다는 점에서는 공통분모를 지닌다.

15) 문화관광부 발표에 따르면 2014년 현재 미술인 월평균수입은 100만 원 이하가 79%에 달한다. 이 가운데 한국 미술인들의 월수입이 0원인 경우도 약 25%에 이른다. 특히 2014년 예술인복지재단 긴급지원요청 비율을 보면 현재의 우

이를 개선하고 극복하기 위한 방편으로 정부와 지자체는 다양한 창작지원 정책들을 개발했는데, 옛 미술장식품 제도와 함께 그 한 예가 바로 예술가에게 작업실을 제공하고 창작 진흥을 지원하는 창작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여기엔 (도시환경미화와 기업이익의 문화예술 환원, 대국민 문화예술 향유라는 목적을 내재한 미술장식품이 그러했듯)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 향유와 도시 재생 및 지역 활성화 등의 효과가 전제되어 있음 또한 사실이다.

창작스튜디오의 역사가 짧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창작 및 제작 공간 지원에 대한 인식과 실천이 주어진 것은 대안공간들이 자리를 잡기 전인 1997년이다. 이때부터 광주광역시 중외공원 내에 위치한 ‘팔각정스튜디오’(공원관리실을 개조해 사용)와 옛 근로자아파트를 개조한 양산동스튜디오, 과거 문화예술 진흥원이 만든 ‘논산, 강화창작스튜디오’ 등이 개소했다. 이후 폐교 등, 여러 유휴공간들을 이용한 창작공간들이 생겨났으며, 이들이 활용한 초기 공간들은 대부분 시각예술가에게 작업실을 지원하는 것이었다. 그러다 2003년 참여정부를 지나 이명박 정부였던 2008년 즈음에 이르러 ‘창작스튜디오정책’으로 본격 전개되면서 폐산업시설을 활용하는 구조로까지 확대되었다.¹⁶⁾

흥미로운 건 이 당시부터 창작스튜디오는 레지던스 유형에서 복합문화공간, 지역 문화센터로서의 역할 변화가 시도됐다는 점이다. 더구나 정부 및 지자체들의 레지던시 정책목표 또한 ▶예술가들에 대한 창작 여건 개선을 넘어 ▶지역 및 도시 재생, ▶지역주민에 대한 문화향유 기회 제공과 참여라는 ‘가시적 효과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기 시작했다.¹⁷⁾ 이를 바탕으로 오늘날의 창작스튜디오는 개념과 역할에 있어 정적인 형태가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 효과 속에서 과거와 걸음을 달리하고 있다. 즉, 예술가의 창작원리 준수에 그치지 않고 그들의 존재 및 창작 활동에 대한 인식과 가치가 사회적으로 ‘공유’되고 ‘소통’하는 것을 뿌리로 하고 있다는 것인데 ▶최근에는 도시계획과 도시 디자인, 건축 분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레지던시 역할은 단순한 창작자에 대한 지원을 확실히 벗어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볼 때 결국 인천아트플랫폼을 포함한 오늘날의 창작스튜디오들의 본질은 공간지원 중심의 과거와 달리 창작가인 작가와 이론가인 평론

리 미술인들이 얼마나 힘든 상황에서 창작활동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데, 전체의 약 30%가 긴급지원대상으로 밝혀졌다. 이는 결국 미술인의 다수가 창작으로 생활하기 어려운 여건 속에 있을 뿐만 아니라, 대개 생계의 문제가 아닌 생존의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함을 지경한다.

16) 2008년을 기점으로 창작스튜디오사업은 매우 활발한 움직임 속에서 급격히 확산되기에 이른다. 창작스튜디오사업은 참여정부 이후 레지던시프로그램을 기준으로 지역사회 연계 활동을 요구하던 차원에서, 2008년을 지나며 도시 재생 및 지역 활성화라는 목표가 첨가되면서 창작공간이나 복합문화공간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변화한다.

17) 창작스튜디오의 변화의 한 배경에는 2000년대 들어 확산된 정부의 창조도시 담론 속에서 이루어낸 영국의 예술인 창작촌 사례나 베이징의 파산츠 798 사례 등이 주요 근거로 작용하기도 했다.

가, 큐레이터, 갤러리스트, 지역주민 등을 연결시키는 매개로 자리하고 있다는 것과 오픈스튜디오, 전시, 국제교류 네트워크, 비평가 매칭 프로그램을 포함한 다양한 학술행사 등이 전방위적으로 지원-포진한 채 여타 창작공간과의 협업, 공유 등을 거듭하고 있어 나름의 다름을 유지하려는 것을 알 수 있다.¹⁸⁾

하지만 창작스튜디오 혹은 창작 공간의 사회적 역할을 강조하는 맥락은 갈수록 요구되고 있으며, 지역사회 연계를 중시하고 대시민 프로그램에 맞춰지는 방향으로의 변화가 두드러진다는 점이다. 이는 예술가들의 사적일 수 있는 창작공간이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거푸집이 되고, 그 관계 속에서 예술의 사회적 가치, 소통의 매개로 작동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¹⁹⁾ 어쩌면 이것이 우리가 보편적으로 수용하거나 혹은 정부와 지자체, 창작공간을 위탁 운영하고 있는 각종 문화재단에서 강조해온/강조하고 있는 창작스튜디오 존재의 타당성내지는 설립의 목적이 아닌가 싶다.

그러나 정작 대개의 창작스튜디오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에 혼란을 느끼고 있다. 즉, 작가 예술창작활동에 중심을 둘 것인지, 일반 시민들을 위한 문화예술 향유 기회제공에 중점을 둘 것인지 모호한 융합적 운영으로 인해 전략 자체가 불분명한 예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더구나 창작스튜디오의 거시적 정책과 레지던시 프로그램이 지향하는 미션이 어떠한지에 따라 시스템의 적용, 특성화 전략에서도 전혀 다른 양태가 표출되고 있음 또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결론적으로 현재 국내 창작스튜디오들의 방향은 모호하거나 지나치게 복합적이며, 작가 창작실현의 심화라는 본연의 가치를 등한시한 채 지역 내 다중적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문화시설에 머무르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역 내 여러 권력자들의 입김과 개입, 미적 교양을 갖추지 못한 이들의 저급한 자본논리에 부합하거나 그들로부터 생성된 주문에 의한 가시적 성과에 연연하는 양태에 들어서 있다. 때문에 레지던시 본연의 역할은 고사하고 부수적인

18) 창작스튜디오에 관한 정부의 인식은 미국 AAC(Alliance of Artists Communities)의 개념에 준하는데, 이는 일정한 기간 동안 작업실과 거주 공간을 제공하며, 예술가로 하여금 본래의 생활권을 떠나 예술창작을 할 수 있도록 전문 인원이 조직되어 책임지고 운영하는 것이랄 수 있다. 따라서 창작스튜디오 관련 정책 과제는 주로 레지던시 프로그램의 연구와 이에 따른 국제교류 프로그램 활성화를 이루는 부분으로 집중되었고, 이러한 역할에 기반, 전국 단위에서 진행되는 창작스튜디오사업은 국내 작가들이 단기간 입주하여 작업실 공간을 제공받고, 동시에 지역사회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형태로 일반화되었다.

19) 사실 정부가 설정한 창작스튜디오의 설립 목표는 우수한 젊은 작가들에게 작업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침체된 예술계에 새로운 창작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내적 타당성을 전제로, 초·중·고교 학생들과 주민의 예술체험 및 작품 제작 실습의 장을 마련하여 국민의 문화향수권을 확대하고, 지역의 문화관광 명소로 이끌어낸다는 외부 효과를 동시에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입주 작가는 스튜디오 사용에서 다양한 활동과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동시에 지역주민 및 학생과 연계한 미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해야 하는 조건이 부여된다. 이러한 목표는 예술가들과 시민들이 창작과 그 결과물을 매개로 레지던시에 개입하면서 지역의 문화공동체로 기능하도록 하고, 보다 넓게는 미술 영역이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력의 증대를 새로운 전망으로 삼았던 정부 정책 기조와 연관된 것이랄 수 있다.

프로그램을 마구잡이로 만들어냄으로써 본래의 설립의도를 무색하게 만드는 사례도 드물지 않다.

특히 입주 작가는 단기간, 한정된 공간지원 속에서 울며 겨자 먹기로 창작스튜디오의 대외적 효과성이 강조되는 프로그램에 동원되기도 하며, 그만큼 예술가의 창작 활동 자체가 소외되는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심지어 예술과 작가자체가 특정한 목적을 위해 도구화할 소지가 있다는 우려 역시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물론 여기엔 인천아트플랫폼도 포함된다. 플랫폼이라 하여 국내 창작 공간에서 흔하게 엿볼 수 있는 문제들에서 자유로운 건 아니라는 것이다.

국내 창작스튜디오들의 ‘흔한’ 문제점

대부분의 창작 공간이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작업실을 제공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예술가들을 공모하여 일정 기간 입주 기회를 제공하는 형태로 일관하는 특징 없는 시스템, 거의 예외 없이 요구하는 예술가들에 대한 너무나 다양하고 방대한 프로그램, 지역연계 프로그램 등은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지금도 곳곳에서 불거지고 있는 동원성 이벤트 및 프로젝트에 대한 작가들의 불만은 적지 않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많은 창작스튜디오들은 공모에 의한 단기 입주 형식을 유지하고 있고,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에 대한 작가들의 자발적이고 자생적인 흐름을 얻어내지 못하며, 예술로 가능하다는 도시 재생에 대한 과도한 기대치로 인해 정책 타당성은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내실보다는 외부 효과에 치중하고 지역 내 권력자들의 눈치를 보다 보니 정체성마저 혼란을 느끼고 있다. 물론 인천아트플랫폼도 예외는 아니다. 지난 2월 12일 열린 2015인천아트플랫폼 발전 방안모색을 위한 비공개자문회의에서도 예술가 중심의 창작레지던시와 시민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 너무 다양한 사업으로 정체성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온 것도 같은 이유다.)

지역을 말하지만 지역에 정착하기 어려운 단기 입주를 통해 예술가들이 지역사회에 개입할 수 있다는 발상도 터무니없고, 단발성임에도 불구하고 예술가들의 지역참여가 궁극적으로는 도시 재생이라는 보다 큰 흐름에도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믿는 정부와 지자체들의 막연한 정책적 신념도 문제라고 볼 수 있다. 물론 그 막연한 신념이 2000년대 중반을 넘어서며 전국적으로 창작 공간 사업을 확산하는데 일조했음은 사실이나 약 20여년의 역사를 지닌 한국 창작스튜디오의 역사를 돌아보면 아이러니하게도 그것과 관련한 의미 있는 성과는 발견하기 힘들다.²⁰⁾

20) 어느 창작공간이든 하나씩은 꼭 해보는 소위 커뮤니티아트(Community와 art는 개별적일 경우 그 역할이 분명해지지

이러한 문제로 인해 짧은 기간 입주하는 작가들이 어떻게 지역사회와 연계할 수 있느냐의 쟁점은 지금도 유효한 과제이다. 아니 어쩌면 받아들이기 힘든 일부 작가의 경우 ‘입주 작가’라는 이유만으로 왜 반드시 지역을 수용해야 하는지도 명확하지 않다. 더구나 지역사회 프로그램이란 것이 작가가 오랫동안 지역에 거주하면서 작가 스스로 지역을 이해하고 주민과의 호흡 속에서 자연스럽게 자발적으로 기획되어야만 한다는 것을 감안하면, 지금처럼 미리 짜여 있는 성과 목표에 따라 프로그램을 가동하는 방식으로는 무리가 따르게 마련이다. 이는 분명 정확한 개념과 방향설정이 요구되는 ‘흔한’ 문제점 중 하나이다.

문제는 내부에서도 발현되고 있다. 지극히 개인적인 연구가 이뤄지는 작업실 제공과 가시적인 성과를 탐하는 창작 진흥이라는 두 개의 정책 목표가 갈등을 빚는 것도 그 중 하나이다. 이를 풀이하면, 작업실 지원이라면 공간이 훨씬 안정적이고 장기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는데 단기 위주의 입주정책상으론 흡족하지 못하며, 창작 진흥이 정책의 목표라면 작가가 목표를 가지고 별도의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입주할 때 가능한 것이지만 거의 운영주체에 의한 ‘내려 받기’ 식이기 일쑤이다.²¹⁾ 또한 그 기준 자체와 작가별 개인차도 모호하거나 애매하다.

여기에 공모 방식으로 단기 입주 작가를 선정함에 따른 ‘작가 관리’ 체제의 문제도 거론할 사안이다. 실제로 창동이나 고양미술창작스튜디오를 비롯해 국내 공사립 창작스튜디오 대부분은 길어야 1-2년에 머무는 단기 입주를 고수해오고 있다.(※얼마 전까지 경상도 지역의 한 창작공간은 2-3개월 초단기 레지던시를 오픈형식으로 운영해 작가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따라서 공급 대비 공간 규모가 작은 형편상 단기 거주로 운영하여 입주 작가가 물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장르별 수혜 작가의 숫자는 거의 영향력을 발휘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즉, 희망자는 많은 반면 수혜자가 적고, 수혜자가 적기에 높은 경쟁률을 보이는 원인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높은 경쟁률은 공교롭게도 자율성을 가장 중요시하는 예술가들에게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으로 적용할 수밖에 없는 폐단을 낳는다.(※일례로 과거 모 지역 레지던시 입주 작가들의 경우 2년간 무상으로 공간을 지원받는 대신 6개월 단위로 평가를 받아 지속 지원

만 이 두 가지 개념이 복합되면서 오히려 난해한 개념이 되고 말았다)나 퍼블릭아트(public art)형 예술로 지역사회에 침투하려고 하지만 지역사회 문제를 예술로 녹여내기보다는 별도의 행사나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수 밖에 없는 한계가 노출되고 있는 것이 좋은 증거다.

21) 사실상 2000년대 후반부터 중시되어오던 ‘지역주민의 예술창작 및 문화향유 기반 확대’라는 정책 목표와 효과도 하달식, 동원식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되면서 왜곡이 발생하고 있다. 물론 그 성과도 미약하다.

여부를 결정하는 등 행정 우위적 발상이 실행되어 논란을 빚은 적도 있다.)²²⁾ 위와 같은 사안들을 종합하면, 결국 국내 창작공간들은 짧으면 3개월, 길어야 1-3년을 넘지 못하는 기간 입주 형식은 그대로인 채, 정책 효과와 목표만 증대해온 형국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지역 연계나 도시 재생 효과에 집중하면서 창작스튜디오의 역할이 변화, 확장된 것에 비해 성과는 크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곧 내적 타당성에 비해 외적 타당성에 더 집중할 수밖에 없는 환경(보조금 사용의 정책 근거나 실적 위주의 운영 정책 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예술 생태계의 전반적인 생리와 맥락을 포괄하기에는 스스로의 한계점을 안은 채 유지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인천아트플랫폼에 관한 고찰

위와 같은 일반적인 문제점을 토대로 인천아트플랫폼을 고찰할 경우 연장선 상에서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하면 변별력을 가중시키는 요소도 없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대개의 창작스튜디오들이 동일하게 격고 있는 정체성의 혼란 ▶순수 예술창작활동과 지역과 시민들을 위한 문화예술 향유 기회제공에 관한 모호한 융합적 운영 ▶내외적 환경에 의한 장기적인 전략의 부재 ▶거시적 정책과 레지던시 프로그램이 지향하는 미션의 불분명함 ▶주변 영향에 따른 방향설정의 모호함과 복잡함 ▶근거 없는 대시민 소통에 대한 믿음에 따른 작가 창작실현 심화 환경조성 등의 등한시 등은 인천아트플랫폼의 입장에서도 생각해봐야할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단기간, 한정된 공간지원 속에서 울며 겨자 먹기로 창작스튜디오의 대외적 효과성이 강조되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동원되는/ 동원된다고 느끼는 작가들과의 갈등 ▶예술가 본연의 창작 활동 자체의 소외현상 ▶예술과 작가자체가 특정한 목적을 위해 도구화할 소지 등도 되돌아봐야할 지점이랄 수 있다. 나아가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작업실을 제공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예술가들을 공모하여 일정 기간 입주 기회를 제공하는 형태로 일관하고 있는 획일적인 시스템(*단, 2015년 작가 공모부터는 지역연계성(인천) 프로젝트에 관심이 많은 작가 선정에 주안점을 두고 공고 하고 심사하였으나 통합공모에 적용하면서 변별력을 희석시킨 점이 없지 않다. 차후엔 분류공모를 통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22) 이를테면 일정 기간 동안 출퇴근 시 지문 날인을 한다던가, 1주일에 4일 이상, 혹은 한 달에 15일 이상 공간을 사용해야 한다는 식의 규정, 거주 결과로 중간 중간 전시회를 해야 하며, 심지어 작가들에 대한 실적 평가를 제작 작품수로 하는 식의 평가 지표를 제시하기도 한다. 입주한 작가들을 대상으로 프로젝트를 공모하여 다시 심사를 거친 후에야 사업을 승인하는 방식도 빈번하다.

왜냐하면 모든 작가들이 지역에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은 아니며, 강요할 부분도 아니기 때문이다.) ▶본의든 아니든 자율성을 가장 중요시하는 예술가들에 대한 ‘관리’의 부담감 전이 등도 고민해볼 지점이랄 수 있다. 여타 창작스튜디오들도 공히 적용되는 것들이지만 인천아트플랫폼의 상황을 대입해도 색깔이 크게 달라지는 건 아닌 셈이다.

이 외에도 중요하게 언급해야할 부분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인천아트플랫폼 주변에 진하게 부유하는 ‘지역’이라는 단어의 부작용과 성과에 대한 의구심이다. 인천에 위치해 있고 인천시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운영된다는 이유로 인천에서 삶을 영위하는 이들에게 일종의 프리미엄을 줘야 한다는 의식이 강해서인지는 몰라도 입주작가 선정 시 인천에 깊은 관심을 표하는 예가 없지 않았고²³⁾ 프로그램도 지역을 의식한 것이 적지 않았다.(※물론 지역 연계 프로그램조차 그 성과가 빼어났다고 보긴 어렵다.)

각종 위원회에도 인천 인사들의 다수가 ‘반드시’ 이름을 올린다. 지역을 잘 아니만큼 지역 인사를 다양한 창구에 앉히는 것이 이상한 게 아닐지 모르지만, 되레 잘 알기에 문제가 되기도 한다. 지역 내 여러 인사들의 입김과 개입, 권력은 있으나 미적 교양을 갖추지 못한 지역 문화 권력자들의 남루한 과시, 매몰된 지역논리와 가시적 성과에 연연하는 태도 등이 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이것이 인천아트플랫폼만의 경우는 아니다. 소위 충청도도 그렇고 경상도도 그러하며 강원도도 마찬가지다.(※사안은 다르지만 예총과 민예총으로 나뉜 채 도내 문화예술행사를 독점하는 구도를 당연하게 여기는 강원도 평창의 경우는 거의 충격적인데, 더 심한 곳도 많다. 발제자는 그들의 행태를 접하며 구시대적이고 폭력적인 헤게모니를 체감하고, 허름한 정신을 엿보며 창작공간, 예술행사조차 그들의 권력 마당이 되고 있음을 느낀다. 그래서일까, 상위 권력자와 호형호제 한다는 이유로 정당한 공식적 주장과 합리적 판단마저 뒤에서 자연스럽게 묵살되는 예를 여러 번 접한 발제자의 시각에서 지역이라는 명사는 매우 후지다. 패거리문화를 좋아하는 후진적 문화, 낙하산, 지역주의 극복 없이 미래는 없다.)

따라서 특정 공간에 대한 지적 보다는 지자체 창작공간을 포함한 예술무대에서

23) 발제자는 몇 년 동안 입주작가선정심사위원을 맡았고, 최근엔 운영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그동안 느낀 것들 중 하나가 바로 지역에 대한 과도한 인심인데, 이는 지난 입주작가현황자료만 봐도 알 수 있다. 일례로 인천아트플랫폼 주요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5년의 경우 전체 29팀 가운데 인천 출신이 전체의 약 1/3에 해당하는 10팀 15명에 달했다. 2014년엔 24팀 29명 중 인천이 8팀 8명에 이르렀다. 결과적으로 2009년 이후 꾸준히 인천출신 작가들이 상당수를 차지해 왔다. 그러나 2015년의 경우 인천작가에 대한 호의적 안배는 없었다. 2015년부터 시도된 지역과 연계한 입주 공모 탓이 크다. 다만 그 이전의 경우 인천작가에 대한 배려 분위기는 분명 존재했다. 그 명분은 ‘인천아트플랫폼은 인천지역문화발전을 위한 플랫폼’이라는 소극적인 인식이었다.

벌어지는 흔하디흔한 오류이자, 경계해야할 부분인 셈인데, 중요한 건 지역에 목매는 고루한 의식과 문화예술계에 접목된 권력의 축수는 이제 멈추거나 달라져야 한다는 사실이다. 즉, 인천아트플랫폼이든 어디든, 어느 공간을 막론하고 지역 예술의 성장은 ‘지역’과 ‘지역인’이라는 한계를 스스로 벗어던지고 외부와의 끊임없는 접촉이 있어야 발전할 수 있다는 사실의 각인과 지역의 프리미엄을 얻어 안주하거나 자릴 내줘야 한다는 당연한(?) 습속을 벗어던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작가들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예술가라면 모름지기 자신의 실력을 제대로 평가받고 검증받을 수 있는 환경을 순차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데 일조하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지, 단지 지역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내가 내는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간이라 하여 예술적 가치에 대한 고민 없이 지역성을 내세워 안착하려는 태도는 지양해야 바람직하다. 그러한 태도는 예술성의 향상, 지역의 발전, 플랫폼 설립의도와 발전에도 득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폐쇄적인 예술적 태도를 양산하는 근간이 될 뿐이요, 일그러진 지역주의를 조성하는 데 보탬이 될 따름이다.

따라서 인천문화재단은 인천아트플랫폼이 지역을 텃밭으로 삼을 뿐 전적으로 지역인들을 위한 공간은 아님을 강조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방식을 통해 외부의 영향력 있는 작가들을 입주시켜 지역의 작가들과 협력을 이루며, 이들의 활동이 역으로 지역 내부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데 관심을 기울여야 합당하다. 인천아트플랫폼이 지역 문화 예술 창작과 활동을 지원하는 전문 기관으로서, 지역 안팎의 창작 및 활동 주체들을 발굴, 양성, 지원하고 이들로 하여금 다양한 예술적 실험과 시도를 통해 예술의 지평을 넓히고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입주 작가 선정 심사위원 위촉 시 또한 지역인사인가의 여부를 중요 판단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다소 극단적인 주문일 수는 있겠지만)심사위원들은 지역 외 전문가들로만 배치하는 것이 합당하다.

두 번째 요구되는 건 전문 매개자의 역할 강화와 전문성 강화이다. 8명에 불과한 현재의 소수 인원으로는 향후 진행될 사업에 대한 대처와 계획수립이 용이하지 않을뿐더러 전문성 개발을 위한 투자가 이뤄지기에 부적합하다. 더구나 트라이볼 운영인원과 시설대관, 홍보, 서무 관련 인원 등을 제외하고 나면 실제로 인천아트플랫폼 레지던시 담당자는 3-4명에 불과해진다. 30여개에 달하는 개별 입주공간과 38팀 47명의 작가를 지원하고 방대한 13개동 규모의 시설운영과 사업운영을 동시에 해야하는 막중한 업무(교육관, 전시장, 공연장을 비롯해 공방 등의

시설물 관리, 입주작가 공모 및 선정을 비롯해 프리뷰, 오픈스튜디오, 작가 포트폴리오 구축 및 아카이브 등)를 소화하기엔 터무니없이 적은 숫자인 셈이다. 따라서 인천아트플랫폼이 발전을 원한다면 세부 업무에 적절한 인원 보충 등의 내적 인프라 구성에 대한 재단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가능하다면 학예사 역할을 할 수 있는 인재를 채용하거나 현재 직원들의 전문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의 강화도 따라줘야 한다. 즉, 재단은 예산감축 상황과 맞물려 인력운영에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는 현재의 플랫폼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부정적인 요소들을 제거하는데 신경 써야만 한다는 것이다. 돈도 없고 사람도 없이 능률을 말하거나 성과를 언급하는 것은 무책임한 양태라고 밖에 할 수 없다.

더불어 인천아트플랫폼은 레지던시의 핵심인 창작실 제공 외에도 국내외 네트워크 활성화에도 깊은 관심과 실효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 국내외 매칭 프로그램을 가동시키고는 있지만 국제심포지엄 등의 국제교류 사업은 예산과 전문 인력 부재 등의 내부 요인에 의해 개관이후 뚜렷한 성과를 거두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이는 서울문화재단 금천예술공장이나 국립현대미술관 고양창작스튜디오 & 창동창작스튜디오, 경기문화재단 경기창작센터의 행보와도 비교된다. 국외 작가 선정 및 지원 그리고 국제적인 홍보채널의 확보와 국내작가와의 교류레지던시 등에 대한 아쉬움이 상대적으로 크다. 집중과 선택에 의한 핵심적이 주력 프로그램의 가동을 비롯해, 창작환경 조성이라는 레지던시 고유의 역할과 심도 있는 네트워크 등은 인천아트플랫폼이 반드시 안고 가야할 중요한 과제이다.

이와 함께 인천아트플랫폼만의 특징이었던 전문 관장을 서둘러 내정해야 한다. 현재 문화재단 본부장이 관장직을 겸하고 있지만 시각예술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는 인천아트플랫폼의 특성상 관련 계통의 전문가가 꼭 필요한 실정이다. 그래야 업무가 원활해지고 작가들을 이해할 수 있는 요소들이 갖춰지게 된다. 만약 관장 인선이 무리라면 세종문화회관이나 예술의 전당처럼 예술감독과 같은 미술전문가를 비정기 근무토록 하는 방법도 고민해볼 만하다. 결국 인천아트플랫폼의 발전을 위해서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조직 점검부터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하나는 예산이다. 인천아트플랫폼의 경상비와 사업비는 인천시로부터 100% 예산을 지원받아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2015년부터 인천시 재정난 등의 이유로 인천시 보조금이 대폭 삭감된 상태이며, 이는 아트플랫폼 13개 동의 운영을 위한 기본 경상비(시설운영비, 인건비)가 약8억 원 내외로 소요되

는 상황에서 사업운영에 심각한 어려움을 가져다주고 있다.

이중 사업비는 전체의 12%인 1억 1천만 원을 확보하는 것에 그쳤는데, 이는 개관해인 2009년 19%보다 낮은 예산으로, 쉽게 말해 전시 한번 변변히 치를 수 있는 액수가 아니다. 그나마 관장 인건비를 없애고 개보수시설비를 축소하는 등, 노력의 결과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선 국비, 후원, 위탁사업비 등 외부 펀드레이징을 통한 자구책 노력과 동시에 최소 규모의 아트플랫폼 운영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2016년 예산확보가 필요하다.(※가능하기만 하다면 지자체로부터의 완전한 재정적 독립과 운영독립이 요구되지만 지역정치인 눈치 보기, 앞뒤 안 가리고 내 식구 챙기기, 보질 것 없는 내공을 지닌 인사들의 권력 코스프레 도구로써의 예술무대가 만연한 현재의 한국 현실에서는 어느 곳 이든 불가능해 보인다. 모 비엔날레 고위 인사가 자신의 동문이라는 단 하나의 이유로 엄청난 수익을 안기는 사업을 형식적인 입찰을 거쳐 거저주다시피 한 사례, 재단예산으로 사적인 부분까지 활용한 사례 따위를 굳이 들먹일 필요도 없이.)

이외에도 인천아트플랫폼이 향후 발전을 위해 고민해봐야 할 것은 입주 작가들과 논의 가능한 장, 즉 협의체 구성이다. 그렇다고 서울문화재단 창작공간 ‘서교예술 실험센터’처럼 지역 내 인사들과의 공동운영단을 꾸리라는 얘기는 아니다. 민주적 일 수도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의사결정이 더디고 사업진행 속도 역시 원활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책임성의 문제에서도 자유롭지 못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플랫폼 측과 입주 작가 간 주기적인 만남을 통한 대화의 기회는 넘쳐 아쉬울 게 없다. 혹시 모를 양자 간 오해와 곡해, 업무의 이해와 배려 면에서 분명 지혜로운 장이 될 수 있다.(※참고로 영은미술관 레지던시에서는 매달 1회 관장과 직원, 입주 작가 간 대화의 장을 마련한다. 이때 작가들은 평소 아쉬웠던 부분에 대해 발언하고 허심탄회한 토론을 이어가 문제화 될 수 있는 부분을 애초 제거한다.)

만약 이것이 원만하게 마련된다면 지난 2013년 11월 전 입주작가들과 지역의 문화예술 관련 주체 50여명이 모여 발표한 <인천아트플랫폼의 독단적 일방적 운영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라는 성명서는 다시 나오지 않을 것이다. 향후 어떤 사안이 발생할 경우 혹시 모를 불필요한 감정대립을 차단하고 합리적 이해를 전제로 한 민주적이며 투명한 운영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작가들에게도 당부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 바로 인천아트플랫폼은 작가들만의 공간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더 엄밀히 말하자면 플랫폼은 누구의 것도 아니면서 누구의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작가들은 입주 시기가 늘어날수록 스

스로들 그토록 싫어한다는 ‘갑’이 되곤 한다. 애기인즉슨, 간혹 직원들을 자신들의 모든 것을 뒤치다꺼리해주는 행정보조 정도로 인식하는 사례가 없지 않음을 목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직원들이 작가들을 관리하려는 자세도 바람직하지 않으나 반대로 행정스텝들을 보조인 정도로 이해하는 것도 올바른 것은 아니다. 플랫폼은 상생의 관계 속에서 함께 만들어 가는 공간이라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으며 내 주장이 관철되려면 상대의 입장도 고려하는 역지사지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작가든 누구든 결국 시대의 흐름과 요청에 부합하는 새로운 지역 문화 지형도와 생태계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구조와 운영 시스템 구축을 위한 마음은 동일하다 믿기에 이것이 과한 주문은 아닐 것이다.

부 록

인천아트플랫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2009. 02. 25. 조례 제4273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술인과 시민에게 필요한 예술창작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인천광역시의 문화예술 창작저변을 확대하게 될 인천아트플랫폼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인천아트플랫폼은 인천광역시 중구 해안동에 두며, 인천아트플랫폼에는 창작작업실, 게스트하우스, 공연장, 전시실, 다목적실, 공방, 커피숍 등의 시설물을 둔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용”이라 함은 창작작업실과 게스트하우스를 제외한 인천아트플랫폼의 시설물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임대”라 함은 전시·공연 등 각종 문화예술 활동을 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 동안 시설물을 이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입주”라 함은 인천광역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 기준에 따라 선정된 자가 창작작업실 또는 게스트하우스를 이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4조(주요사업) 인천아트플랫폼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입주 작가 선정 및 각종 예술창작지원
2. 시민 예술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예술창작·문화활동 지원
3. 국내외 문화예술 교류 및 상호 네트워크 구축
4. 인천아트플랫폼 시설 및 부속시설물의 운영
5. 그 밖에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문화예술 창작저변 확대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사용·임대허가) ① 인천아트플랫폼의 시설을 사용·임대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② 시장은 인천아트플랫폼의 사용을 허가한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인천아트플랫폼의 임대를 허가한 경우에는 별표에 따른 임대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제6조(임대료의 감면) 시장은 시 또는 제9조에 따른 수탁자가 주최 및 주관하는 행사에 대하여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입주허가) ① 창작작업실(게스트하우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입주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간을 정하여 창작작업실의 입주허가를 하되, 필요한 경우 연장허가를 할 수 있다.

1. 장기입주 : 1년 이내
2. 중기입주 : 6개월 이내
3. 단기입주 : 3개월 이내

③ 시장은 창작작업실에 입주한 자에 대하여 창작작업실 이용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입주기간에 발생하는 실비(전기료, 수도료, 전화료, 인터넷이용료, 냉·난방비 등 제세공과금을 말한다)는 입주한 자가 부담한다.

④ 창작작업실 입주대상자의 선정기준과 입주허가 취소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허가의 취소) 시장은 사용·임대·입주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허가받은 당사자 외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등 인천아트플랫폼

의 사업목적에 위반하여 이용한 경우

2. 인천아트플랫폼의 시설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문화예술 창작저변 확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9조(운영의 위탁 등) ① 시장은 문화예술 창작저변 확대를 위하여 인천아트플랫폼의 운영을 문화예술 관련 전문기관 또는 비영리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위탁조건 등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인천아트플랫폼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의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인천아트플랫폼의 유지관리를 소홀하게 하거나 시설을 임의 변경한 경우

2. 인천아트플랫폼의 사업목적에 위배하여 이용한 경우

3. 위탁관리의 계약내용 및 조건을 위배한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문화예술 창작저변 확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10조(손해배상) 수탁자 또는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을 훼손 또는 멸실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변상 또는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문화재단 인천아트플랫폼 운영규칙

제정 2009. 04. 23. 규칙 제66호

개정 2011. 03. 01. 규칙 제82호

개정 2012. 07. 24. 규칙 제91호

개정 2015. 04. 14. 규칙 제120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단법인 인천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인천아트플랫폼(이하 “아트플랫폼”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술창작활동 지원 및 새로운 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스튜디오”라 함은 이 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선정된 자가 이용하는 창작작업실을 말한다.
2. “임대”라 함은 스튜디오 및 게스트하우스를 제외한 시설물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3. “대관”이라 함은 전시·공연 등 각종 문화예술 활동을 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 동안 시설물을 이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조(운영범위) ① 운영범위는 인천광역시(이하 “시”라고 한다)가 위탁한 시설물 및 재산 일체로 한다.

② 재단은 「인천광역시 아트플랫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고 한다)에서 정한 시설 등에 대하여 임대 및 대관할 수 있다.

제4조(운영시간)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스튜디오 및 게스트하우스 : 입주작가에게 24시간 개방을 원칙으로 하되 아트플랫폼 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운영상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2. 07. 24>

2. 1항 이외의 공간은 10시부터 18시까지 개방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2. 07. 24>

3. 휴관은 1월1일, 매주 월요일로 한다.<개정 2012. 07. 24>

4. 전항에도 불구하고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안전관리) ①관장은 이용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소방, 재난관리, 시설물 안전관리 등에 관한 관계법령에 의하여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 유지하며, 사고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관장은 시설물 및 재산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전기사업, 소방, 에너지이용, 고압가스 안전, 도시가스사업 등에 관한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적정 인원의 자격증 소지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③관장은 시설물 및 재산에 대하여 각종 안전사고와 화재 등 재해에 대비, 관련법령에 따라 건물대금 상당액 이상의 재해 또는 손해 보험에 인천시를 수령인으로 하여 가입하여야 한다.

제2장 입주 작가 선정 및 관리

제6조(기간) 스튜디오 및 게스트하우스 입주 작가의 입주기간은 조례에 의거하여 다음 각 호와 같으며, 필요한 경우에 심사를 거쳐 연장할 수 있다.

1. 장기 입주 : 1년
2. 중기 입주 : 6개월 이하
3. 단기 입주 : 3개월 이하

제7조(신청자격) ①스튜디오의 입주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하여 만 25세 이상의 시각예술분야 등 예술가<개정 2012. 07. 24>

2. 창작활동이 활발한 시각예술분야 등 예술가 개인 및 팀<개정

2012. 07. 24>

3. <삭제 2012. 07. 24>

4. 전항에도 불구하고 재단 대표이사(이하 “대표이사”라 한다) 또는 관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게스트하우스의 입주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운영목적에 부합하는 예술가 및 문화예술 분야 연구자, 관련 전문가

2. 기타 재단 또는 아트플랫폼이 초청한 단기 방문 국내외 인사

제8조(신청서류) 스튜디오 및 게스트하우스에 입주를 희망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1. 입주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및 첨부 서류

2. 기타 관장이 추가로 요청하는 서류

제9조(선정) ①스튜디오 및 게스트하우스 입주 작가는 공모를 통해 입주 작가 선정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에서 선정한다.

②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내외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1. 관장

2. 문화예술 관련 전문가 6인 내외

③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를 원칙으로 하며, 세부기준은 심사위원회에서 정한다.

1. 창작활동 경력 및 발전가능성

2. 입주기간 프로젝트 수행 계획의 충실도

3. 아트플랫폼 운영 목적에 대한 기여도

제10조(허가 및 절차) 심사위원회가 선정한 입주 작가는 관장의 허가를 얻은 후, 계약 체결 등의 절차에 따라 입주한다.

제11조(이용료 부담) ①입주 작가는 스튜디오 및 게스트하우스 내부

에서 공중파 및 케이블 TV 시청, 컴퓨터 및 전화 사용 등을 위해 필요한 TV·전화기·컴퓨터 등을 개별적으로 구입하여 설치·이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용료는 개별적으로 부담한다.

②입주 작가는 스튜디오 및 게스트하우스에서 사용한 전기료, 수도요금 등 제세공과금을 부담한다.

③공동휴게실 및 공동작업실 운영에 필요한 전기료, 수도요금, 청소비 및 인터넷 이용료 등은 아트플랫폼이 부담한다.

④단기 방문 국내외 초청인사가 게스트하우스에서 사용한 제세공과금은 아트플랫폼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⑤기타 이용료 부담 등에 관하여는 아트플랫폼과 입주 작가 간에 상호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제12조(지원관리) ①관장은 입주기간의 1/3 이상을 이용하지 않고 자진 퇴실한 작가 또는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강제 퇴실당한 작가를 스튜디오 및 게스트하우스의 각종 지원 및 관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관장은 스튜디오 이용률 등의 활동이 저조한 작가에 대해 각종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13조(스튜디오 및 게스트하우스 개방) 관장은 아트플랫폼과 입주 작가 홍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입주 작가의 사전 동의를 얻어 이를 개방할 수 있다.

제14조(준수사항) 입주 작가는 아트플랫폼의 원활한 관리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아트플랫폼 운영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2. 타 작가 등에게 스튜디오 및 게스트하우스를 이용하게 하거나 그 가족이 함께 숙박하는 등 원래 목적과 다르게 이용하여서는 안 된다.
3. 제반 시설 및 자료 등을 훼손하여서는 안 되며 훼손 시에는 원상 복구하거나 적절한 배상을 하여야 한다.
4. 설치 또는 지급 장비 이외의 냉난방 기구, 전열기 등을 사용하여서는 안 되며 사용이 불가피할 때에는 사전에 관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5. 에너지 절약 운동 및 전염병 예방 등 아트플랫폼 환경 청결 유지 관리에 적극 동참하여야 한다.<개정 2012. 07. 24>

6. 아트플랫폼에서 기획·운영하는 각종 프로그램에 적극 지원·협조하여야 한다.

7. 창작활동은 지정된 공간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타 공간 이용이 필요할 경우에는 아트플랫폼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제15조(퇴실) ①입주 작가는 계약 기간 만료일까지 퇴실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 등으로 인하여 입주계약 기간 만료 전에 자진 퇴실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장의 허가를 얻어 퇴실할 수 있다.

②관장은 입주 작가가 계약 사항의 위반 또는 제14조의 규정을 이행하지 않거나, 대외적으로 기관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기타사유 등으로 계약의 해지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었을 때에는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해 계약을 해지하고 퇴실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2. 07. 24>

③제2항의 퇴실명령은 최소 10일 이상의 기한을 두고 하여야 하며, 입주 작가는 이에 응해야 한다.

제16조(각종 사고 예방) ①관장은 제반 안전사고의 사전 예방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

②입주 작가는 전열기 등의 사용 등으로 인한 화재와 도난 등 각종 안전 예방을 위한 제반 조치를 자율적으로 강구 시행하여야 한다.

제3장 운영자문위원회<개정 2015. 04. 14.>

제17조(설치) 아트플랫폼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자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5. 04. 14.>

제18조(구성) ①운영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5. 04. 14.>

②위원은 아트플랫폼 운영과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거나

아트플랫폼의 효율적 운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인사 중에서 재단 대표이사가 위촉한다.<개정 2015. 04. 14.>

③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재단의 관련 규정 및 규칙은 준용한다.<개정 2015. 04. 14.>

④운영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대표이사가 위촉한다.<개정 2015. 04. 14.>

⑤ <삭제 2015. 04. 14.>

⑥ <삭제 2015. 04. 14.>

제19조(기능) 운영자문위원회는 아트플랫폼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개정 2012. 07. 24><개정 2015. 04. 14.>

1. 아트플랫폼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개정 2015. 04. 14.>

2. 기타 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표이사 또는 관장이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5. 04. 14.>

3. <삭제 2012. 07. 24.>

4. <삭제 2012. 07. 24.>

5. <삭제 2015. 04. 14.>

제20조(회의) ①회의는 관장 및 위원장의 요청이나 재적의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개정 2015. 04. 14.>

②운영자문위원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인천아트플랫폼 운영자문위원회 담당 실무직원이 된다.<개정 2015. 04. 14.>

③간사는 운영자문위원회의 회의록을 정리·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5. 04. 14.>

③ <삭제 2015. 04. 14.>

④ <삭제 2015. 04. 14.>

제21조(임기) ①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하되, 잔임 기간이 총

임기의 1/4 이하일 경우는 보임하지 아니한다.

③ <삭제 2015. 04. 14.>

④ <삭제 2015. 04. 14.>

⑤대표이사는 다음 각 호의 1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3. 기타 위원으로서의 품위 등을 손상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을 때

제22조(수당 등의 지급) 운영자문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회의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 04. 14.>

제4장 관장

제23조(임면) ①관장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선발하고 대표이사가 임면한다.

②관장의 임기는 2년을 원칙으로 하되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 기간과 관련해서는 재단의 관계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관장은 직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④대표이사는 관장이 전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제25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근로계약에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임할 수 있다.

⑤관장의 채용 방식은 대표이사가 따로 정한다.

⑥관장을 신규 임용하는 경우 관련 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할 수 있다.

제24조(직무 및 권한) ①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아트플랫폼 운영에 관한 종합계획 및 연간 기본계획의 수립과 추

진

2. 아트플랫폼 운영에 관한 예·결산 및 평가업무 총괄
 3. 아트플랫폼 사업의 기획과 추진 총괄
 4. 아트플랫폼 및 부대시설의 임대 및 관리총괄
 5. 기타 아트플랫폼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하다고 대표이사가 인정하는 사항
- ②관장은 소속 직원의 직무를 배정하고 필요한 업무지시를 할 수 있다.
- ③소속직원의 채용, 파견, 전출 등 인사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대표이사에 게 건의할 수 있다.<신설 2012. 07. 24>

제25조(보수 및 평가) ①관장의 보수에 관한 사항은 대표이사가 따로 정한다.

②대표이사는 관장이 추진한 업무계약의 이행실적 및 운영실적을 평가할 수 있다.

③대표이사는 전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토대로 관장에 대한 재계약 여부 및 보수를 책정할 수 있다.<개정 2012. 07. 24.>

제5장 부서 및 직원

제26조(부서) ①아트플랫폼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관장 아래에 부서를 둔다.

②부서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은 시와 협의하여 대표이사가 정한다.

제27조(직원의 임면 등) ①직원의 채용은 공개채용으로 하되, 재단 관계 규정에 따라 대표이사가 임면한다.

②직원의 보수, 복무에 관한 사항은 재단의 관계 규정에 따른다.

제6장 대 관

제28조(대관) ①아트플랫폼의 운영 및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운영방침에 부합하여 문화예술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시 또는 행사 등을 위하여 시설을 외부에 대관할 수 있다.

②대관에 관한 세부내용은 대표이사가 별도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운영세칙)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장이 따로 정한다.

제2조(준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과 해석에 관하여는 아트플랫폼 내규 및 재단 규정 · 규칙과 관계법령 및 관례에 따른다.

제3조(시행일) 이 규칙은 대표이사가确定的 날로부터 시행한다.

메 모

메 모

메 모
